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세상살이에 어려움 없길 바라지 말라.
어려움이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5월 1일)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 불교지도자들이 금산사 미륵전 앞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기념촬영하는 모습.

‘교류 40년’ 韓日불교, 세계평화 기원하다

한일 · 일한불교교류協,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
불교중흥 · 세계평화 공동 기원해
합동 위령재 · 과거사 참회 재조명
국보 미륵전 앞에 ‘금목서’ 기념식수

김제 금산사=윤호섭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의 불교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미륵성지를 대표하는 김제 금산사에서 러시아 ·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더불어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죠)는 6월 13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한일 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2박 3일간 열리는 한일불교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석으로, 한국불교와 일본불교 지도자들이 국운융성과 양국의 불교중흥, 세계평화를 위한 축원을 올리는 자리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먼저 양국이 40차례의 교류를 이어가며 함께 만들어낸 성과의 의미를 짚었다. 스님은 △2005년 당시 일한불교협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의 일본 과거 역사 참회 발표 △2008년 일본 우천사에서 양국 합동으로 ‘한국 출신 전몰자 유골송환 위령제’ 봉행 및 유골 101위 반환 △2009년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여주 신륵사에 ‘인류화합공생기원비’ 건립 △2011년 동일본대지진 희생자 추도 합동위령법요 봉행 및 성금 1천만엔 전달 등 역사적인 교류 성과를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이렇게 두 나라 불교는 석가세존이 설하신 자각각타 각행원만의 근본 교리를 따라 불국토 건설을 위해 매진해왔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이 세상에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하기에 더욱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한불교협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4년 만의 재회에 반가움을 표하면서 “다시 한 번 양국 협의회 발족과 대회 개최의 목적, 포교 교화의 실정에 대해 인식하고 활발한 의견 교환과 상호 이해를 더욱 깊게 했으면 한다”며 “동시에 양국의 우의가 더욱 발전해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재임 시절 금산사로 대회장소를 결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임기를 마친 채 법회에 함께한 진안 금당사 회주 원행 스님은 은사인 월주 대종사가 평생 실천한 자비행처럼 양국 불교도 도 자비실천에 앞장서길 희망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미륵신앙 근본도량인 금산사에서 두 나라 스님들의 발원이 이뤄지길 기도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또한 한일불교협 부회장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불제자들이 불교의 역할과 소명을 더욱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한국과 일본의 불교 교류가 단순한 정례모임이 아닌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갈수록 심해지는 세계적 분쟁과 갈등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불교협 상임이사 도각 스님과 일한불교협 부회장 시바타 테츠겐 스님은 각각 축원문과 표백문으로 양국의 친선우의와 교류증진, 전쟁종식과 세계평화 등을 발원했다. 이어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전일본불교회장 오타니 쵸유 스님은 각각 김대현 종무실장과 오노이 카토 스님의 대독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국보로 지정된 금산사 미륵전 앞에서 40차 대회를 기념해 금목서를 식수했다. 겨우내 푸른 잎을 선보이고, 향이 가득한 금목서처럼 양국 불교의 교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법회에 앞서 한일불교협 회장 진우 스님은 금산사 미륵전에서 불교중흥을 염원하는 108배를 올렸으며, 이어 화림선원에서 진행된 차담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도영 대종사는 “일본불교는 생활불교로서 모범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일한불교협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은 “그동안 일본불교는 장례문화를 대표하면서 생활불교로 자리를 잡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장례 간소화 추세가 심해져 어려움이 많다”면서 “한국불교와의 깊은 교류로 많은 것을 서로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금 · 은빛 ‘성불 발원’ 담은 14세기 ‘고려 사경’ 고국으로

문화재청, 6월 15일 환수 ‘묘법연화경 권제6’ 공개

금 · 은니 필사 절첩본 제작
공양 실천 중요성 강조 특징
복권기금 관리지원으로 환수

일본에 소장됐던 700년 전 제작 고려 사경이 국내로 돌아왔다. ‘묘법연화경’ 전파의 중요성과 공양실천에 대한 강조가 담긴 사경은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과 관리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복권기금으로 추진, 환수될 수 있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월 15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단(이사장 김정희, 이하 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寫經) ‘묘법연화경 권제6’을 공개했다.

가로 1070cm×세로 27.6cm×두께 1.65cm 크기인 ‘묘법연화경 권제6’은 감색 종이에 경전의 내용을 금 · 은니로 필사해 절첩본으로 만든 고려 사경이다. 지난해 6월, 일본의 한 소장자가 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문화재청의 행정지원과 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데 성공했다.

‘묘법연화경’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한 경전이다. 총 7권 중 제6권에 해당하는 ‘묘법연화경 권제6’은 〈묘법연화경〉 전파의 중요성과 공양 실천에 대한 강조를 주 내용으로 한다. 표지에는 4개의 금니로 그려진 연꽃이 수직으로 배치됐고 넝쿨무늬가 은니로 여백없이 그려졌으며 그 위로 사각의 칸을 두어 경전의 제목을 적었다.

경전의 내용을 압축해 묘사한 변상도는 4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다. 화면 우측에는 〈묘법연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모니불과 그 권속이 그려져 있으며 좌측에는 사람들이 성내며 돌을 던져도 ‘그대들은 모두 성불하리라’고 말하는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 제20품)의 장면, 타오르는 화염 속 자신의 몸을 바쳐 공양하는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제23품)의 장면 등 ‘묘법연화경 권제6’의 내용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들이 담겨있다.

특히 화면 우측의 설법 장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화면을 선으로 빼곡하게 채운 점 등에서 14세기 후반 고려 사경의 특징이 드러난다. 총 108면에 걸쳐 이어지는 경문은 한 면당 6행씩, 각 행에는 17자의 글자가 적혀 있으며 금니로 경계를 그리고 은니로 글자를 적은 형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번에 공개된 ‘묘법연화경 권제6’은 불교문화유산으로서의 종교적 가치와 뛰어난 미적 가치를 함께 자랑한다”면서 ”7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해 향후 다양한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과 재단은 이번 환수 문화유산의 공개가 고려 사경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고려인의 바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현지 협력망 확대를 통해 국외 중요 한국 문화유산의 발굴과 환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경은 불교 경전을 옮겨 적은 경전을 의미한다. 본래 불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제작됐으나 점차 발원을 통해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 여겨져 널리 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고려시대에 사경제작이 성행했으며 국가기관인 사경원을 통해 국가의 안녕을 빌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 등을 바라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일본서 환수돼 공개된 고려 사경 ‘묘법연화경 권제6’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오늘 대한민국, 순국선열 희생 덕분”

조계종, 정전 70주년 ‘제23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코로나19 이후 첫 야외 법석
종단 차원 행사로 의미 더해
진우 스님 “희생의 역사 간직”
윤석열 대통령도 조전 보내와


이운차에 올라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위패를 이운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상철 군불총 회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는 민족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몸 바치신 선열들과 호국영령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올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 참전국 장병,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을 추모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6월 11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제23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실내에서 약소하게 치러지던 추모의 법석은 4년 만에 다시 야외에 펼쳐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단이 행사를 주최하고,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공동주관을 맡아 의미를 더했다.

행사 1부인 천도의식은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인 정오 스님과 서울시 무형문화재 43호 경제어산 회원 스님들이 맡았다. 스님들은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 앞에서 순국선열 호국영가들의 영가 청혼으로 의식을 시작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상철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이운차에 올라 특설무대까지 이동해 특설무대에 위패를 안치했다. 특설무대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6.25전쟁 16개 참전지원국, 6개 의료지원국 용사들의 위패도 함께 마련했다.

2부 추모법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평안을 기원했다. 스님은 “오늘 이 푸르른 실록의 국토에서 후손들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초개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의 숭고한 마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전 70주년인 지금, 남과 북이 여전히 나뉘어 살고 있다는 점이 후손으로서 부끄럽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호국영령님들의 고귀한 희생의 역사를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다가올 새로운 미래 천년의 민족 번영을 위해 후손들은 모든 역량과 원력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전을 보내 뜻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웅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구국 영웅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전했다.

위령대재를 주관한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은 봉행사에서 “평화와 화합의 가르침 위에서 우리는 전쟁에 희생된 모든 영가를 분별하지 않고 위령재에 모셨다”며 “영령들께서 생멸 없는 진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극락왕생하시어 열반의 행복을 누리시도록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철 군불총 회장은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후손이 지켜가야 할 주요 계승 의례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장병들의 호국 의지를 고양해 국운융창과 무운장구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원욱 국회정각회 명예회장도 단상에 올라 부처님의 자비가 전쟁의 상흔을 보듬길 기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를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위령재에 참석한 1500여 명의 사부대중은 박찬근 군불총 공군부회장이 대표로 봉독한 발원문을 통해 국군장병의 무운장구와 남북통일로 더 이상 분단의 아픔이 없길 발원했다.

“지계가 곧 보살행입니다”
진우 스님 포살법회 법문

6월 14일 직할교구 포살법회서
지계, 육바라밀행 실천 강조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직할교구 포살법회에서 소참법문을 설하고 있다.

“보살이 하는 행동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고 저절로 인욕하게 되고 저절로 보시하게 되고 저절로 정진, 선정, 지혜가 나옵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6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직할교구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법사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했다.

포살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 표준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봉독하며 십중계와 48경계를 설하고 소참법문을 이어갔다. 이날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지계의 중요성과 육바라밀의 실천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수행자이기에 스스로 평안해야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스님으로서의 위의가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재가자들을 포교 · 전법할 수 없다. 이는 부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를 범하면 그 순간은 즐겁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고통이 오니, 탐진치 오욕락에 빠지지 말고 계를 잘 지켜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보살행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건 인연법과 인과법”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인과는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것이다. 한 번 즐거우면 한 번 괴롭고, 태어나면 죽는 것이고 건강했다면 병을 얻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와 진배없는 의미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육바라밀의 실천이 보살행임을 강조하며, 그 안에 지계(持戒)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진우 스님은 “보살행을 하면 인과와 업장이 없기에 괴로움도 고통도 없다. 보살행을 하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 되고, 인욕행이 되고, 보시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보은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추대

6월 15일 운영위원회서… 추대법회 10월 1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 조실에 원로의원 지명 대종사〈사진〉가 추대됐다.

법주사(주지 정도)는 6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실에 지명 대종사를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회주에는 도공 스님, 율주에는 무상 스님을 추대했다.

이 자리에서 지명 대종사는 “인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모든 대중이 수행정진해 나간다면 산중에 수행풍토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법주사를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진표율사의 미륵사상과 유식사상, 금오 스님의 선사상과 수행정신이 한국불교에 올곧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실 추대법회는 금오 스님의 55주기 다례일인 10월 1일 오전 10시 법주사에서 봉행된다.

지명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2년 금산사에서 용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명 스님은 전통교학과 현대불교학에 두루 밝은 학승(學僧)으로 꼽힌다. 범어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공부한 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종교학과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유학을 마친 지명 스님은 종단 주요소임을 지내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 청룡암과 의왕 청계사, 괴산 각연사에서 각각 주지 소임을 맡으며 일선 포교현장에서 불법 홍포에 앞장섰다. 제9, 12, 14대 종회의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섰으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총무원 기획실장, 동국학원 감사 등으로 일하기도 했다. 특히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를 맡아 교구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진력했다.

저서로 〈중국불교선사상 연구〉 〈하이데거와 히사마 쓰시니치의 무사상 비교〉 〈만공의 선사상연구〉, 〈천태의 불이철학〉 〈허공의 몸을 찾아서〉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 · 태고종, 전법 포교 함께 노력”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 만나 환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 수장이 만나 불교발전을 위해 함께 전법 · 포교에 매진할 것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가장 먼저 진우 스님은 상진 스님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불교가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선도해왔는데 근래에 많이 약해졌다”며 “조계종뿐만 태고종에서도 전법과 포교에 신경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상진 스님은 “현 태고종 총무원장인 호명 스님께서 종단 안정화를 잘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태고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계종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두 스님은 국내에서 불교세가 약해지고 서구종교가 상대적으로 득세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심으로 종단 화합을 이뤄내자고 의지를 다졌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미흡한 부분은 태고종에서 잘 메워주시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진 스님은 “종단협 역할이 상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태고종과 다른 종단들이 보조를 맞추면 불교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임명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에 법상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법상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종책불사 기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4년간 본사와 교구를 잘 이끌어 소임을 잘 마쳤고, 그 공덕으로 새롭게 소임을 이어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종단의 주요 종책 불사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법상 스님은 “대흥사 조실스님과 대중스님들이 다시 한 번 주지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종단과 교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신성민 기자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출간 기념 법회

김영사

해탈·열반의 관문을 여는 열쇠,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 스바하”

화제의 스테디셀러



김사철 · 황경환 | 272쪽 | 15,800원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미국의 휴즈 사社에서 21년간 원로 과학자로 봉직한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선구자이자 불교 수행자인 김사철 박사와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빠알리 삼장을 연구, 번역하는 초기불전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황경환 박사가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 원문의 우리말 해석을 소개하는 출간기념 법회를 개최한다.

한국에 불교가 전해 내려온 1,600년의 장구한 시간 동안,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 원문이 지닌 비의秘義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인간 삶의 동반자인 생사生死 문제는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대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어두운 밤의 횃불이며 등대라는 부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행사명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출간 기념 법회
일시 2023년 6월 24일 (토) 14:30~16:30
장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경북 경주시 동대로123)

황경환 | 재가 불교연구가이자 사업가이다. 한국불교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국제 PTP 한국본부 총재 및 울산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며 (사)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이다. 저서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등이 있다.



주최 경북신문, (사)21세기 불교포럼 | 후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주)경주아이씨에스, BBS불교방송 | 협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김영사

TEL. 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한일불교 "전쟁·기후위기 극복 앞장"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인류공영 기여' 공동선언 발표

교류 40년 역사 의미 되짚으며 세계평화·불법홍포 노력키로 원론적인 수준 선언은 '아쉬움' 일본 측 참여 저조도 해결과제

전주=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공동선언문 서명 후 서로 교환한 한일불교협 사무총장 향운 스님(사진 왼쪽)과 일본불교협 사무차장 카가와 호유 스님.

지난 46년간 40차례에 걸쳐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교류해온 양국 불교계가 기아와 전쟁,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천명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는 6월 13일 금산사에서 봉행한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전주 라한호텔로 자리를 옮겨 학술강연회 및 공동선언문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양국 사무총장 명의로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는 △한일 불교도의 친선 교류가 세계평화에 기초가 됨을 재확인 △생명 존중과 정신의 가치를 존중해 위기에 처한 인류와 지구에 희망이 되도록 노력 △인류가 처한 현안을 직시해 불법에서 대안을 찾고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실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40차 대회를 계기로 시대 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양국 교류 모색과 함께 상호 연대로 지혜를 모아 사회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불교도가 되기 위해 정진하고자 서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언문의 내용처럼 전쟁과 기후위기 등 인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불교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1977년 1차 대회 당시 서로 유학생을 보내 교류하자거나 36차 대회서 청소년 교류사업의 이행을 결의한 것에 비하면 적극성이 떨어졌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일본 측의 참여가 저조해진 것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대회에는 일본 측에서 총 37명이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2명을 제외한 35명이 참가했다. 한국 측에서 150명의 인원이 대회에 힘을 보탠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과거 한국 측 회의에선 일본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 측 회장인 후지타 류조 스님이 이를 인식한 듯 환영만찬 전 차담에서 갑자기 "매년 일본 참가자가 줄어 한국 측의 우려가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지타 류조 스님은 또 "이번 참가자들이 정예 멤버다. 일당백을 소화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각 종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면, 일한불교교류협의회는 종단이 아닌 개인회원 자격으로 참가하면서 생긴 차이로 보인다. 양국의 현실은 차치하더라도 한일불교계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선 일본 측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진행된 학술강연회서는 한국 측에서 가장 오랫동안 구성원으로 활동한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이 '한일 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연설을 맡았다. 스님은 한일 불교 40년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실로 30차 대회 당시 양국 불교계가 신륵사에 공동으로 세운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꼽았다.

인류화합공생기원비는 지난 2009년 당시 양국 불교협의회 회장이었던 지관 스님과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김문수 경기지사, 이기수 여주군수,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 등 500여 명이 함께 건립한 것으로, 일제가 한국에 끼친 피해와 고통에 반성하고 참회한다는 글귀를 새겨 세간에 화제가 됐다.

홍파 스님은 "30차 대회에서 제가 밝힌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형제처럼 살아가자'는 얘기를 현재도 되새겨야 한다"며 "당시 제안한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실행'은 지금의 세계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묘방"이라고 강조했다.

강연회 일본 대표로는 노자와 류우코 스님이 글을 썼다. 다만 스님은 세수로 93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스님의 글은 다른 참가자가 대독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해당 참가자도 개인적 사정으로 대회에 불참하면서 묵독하는 시간으로 대신했다.

"대구시 종교자문위 폐지…종교갈등 우려"

선광·도심 스님, 6월 14일 대구시의회 항의 방문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광 스님과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이 6월 14일 대구시의회를 방문,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존치와 조례 일부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계종 측의 요구에 김재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심사숙고하겠다"는 짧은 답변만을 남겨 불교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심 스님은 종교자문위 존치가 "종교간 화합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스님은 "전국지자체 중 대구시에만 유일하게 종교편향 공연과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고, 2021년 신설된 종교자문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종교화합을 위한 대구시의 긍정적 노력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문위원회 신설 이후 종교편향 논란이 줄어든 공연이 그 성과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를 폐지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선광 스님도 "종교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자문위가 1년 반이라는 짧은 시점에서 베토벤 교향곡 논란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제도를 만들기까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는 것은 향후 종교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이 "자문위가 폐지되면 논란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냐"고 묻자 선광 스님은 "당연하다"면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대구는 특정종교 찬양이 담긴 노래 구성이 상당히 많았고 지난 2021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공연에서 그런 논란이 있어 이런 부분이 제도화된 것"이라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에 김재우 위원장은 "심사숙고 해 진행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6월 20일 자문위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계종은 자문위 폐지에 항의하기 위해 홍준표 시장과 면담을 신청한 상태다. 정당한 이유없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구시의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7차 회의를 갖고 특정종교 편향성이 짙은 합창곡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린 종교자문위를 폐지하는 대구시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강경한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임은호 기자

본지·거인병원, 불자 건강 증진 돕는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서 MOU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 하는 본지 대표 혜도 스님(사진 오른쪽)과 이숙희 사무국장.

현대불교신문(대표 혜도)과 부산 정형외과 중점병원 거인병원(대표원장 이승준)이 국민과 불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본지와 거인병원은 6월 12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환자 편의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특히 본지 독자들은 거인병원 시설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한해 비급여 진료 부문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용 희망자는 거인병원에서 접수 시 현대불교신문 독자임을 밝히면 할인 가능하다. 할인대상은 본지 독자와 직원, 직원 직계 가족이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본지 독자들의 건강 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무 협약을 통해 현대불교신문은 거인병원 진료 및 활동을 홍보한다. 부산 사직동에 위치한 거인병원은 지난해 11월 개원한 정형외과 중점병원이다. 지하 2층에 지상 10층, 총 103개 병상을 갖춘 복합의료시설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내과 등을 진료하며 관절 및 척추, 스포츠 의학을 전문으로 담당한다. 의료진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구성됐다.

본지 대표 혜도 스님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해야 수행도 잘 할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숙희 거인병원 사무국장은 "이 인연으로 한마음선원 불자들과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이 건강해지길 바란다"며 "병원을 찾는 모든 불자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병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전통사찰 종부세, 지역공동체 파괴 야기"

이상근 회계사, 6월 12일 국회정각회 토론회서

낮은 임대료 사찰 보유 주택 수익용 평가 후 종부세 부과 임대료 상승, 주민 피해 따라

경북 안동 서악사의 사촌(寺村)은 6.25한국전쟁 이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들어 조성된 곳이다. 전쟁으로 갈 곳이 없어졌던 사람들에게 서악사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책정해 토지와 주택을 제공했고,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모여 들어 지금의 사하촌이 형성됐다.

70년 동안 사찰과 주민이 공생하며 살아왔던 관계가 수년 전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때문이다. 부자들을 잡겠다고 부과한 종부세가 서악사 2021년 기준 예년보다 10배가량 올랐다. 결국 서악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역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처럼 전통사찰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6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근 일신회계법인 회계사는 전통사찰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성토했다.

이 회계사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종부세 부담이 감소했지만, 2020년 이전과 비교하거나 해당 부동산 수익금에 비교하면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토지, 주택분 종부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회계사는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증가하면 사찰은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인근주민이나 농민의 부담으로 연결돼 지역공동체의 불화와 분쟁을 야기할 수 밖에 없어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계사는 전통사찰에 대한 종부세 개정방안으로 △전통사찰 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 배제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조세 감면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는 합산에 배제되는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기에 주택분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회계사는 "전통사찰 소유 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향교처럼 '전통사찰 소유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에 배제토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은 불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종부세 정책 변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과장은 "조세지원 범위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넓어졌음에도 각종 세법에 경내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서 한국불교 알린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8월 1~12일, 32년만에 韓서 개최
불교연맹, 법당·푸드하우스 운영
성행 스님 "한국불교 세계 알릴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계획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연맹장 성행)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 한국불교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은 6월 12일 종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진행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연맹의 합동 야영대회다. 14~18세 스카우트 대원을 중심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 각국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의 장을 펼친다.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를 주제로 152개국에서 14~18세 청소년 약 4만 5000명이 참가 예정인 이번 새만금 대회에서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잼버리 법당과 서브 캠프, 푸드하우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장 내에 설치될 '잼버리 법당'은 참가자들이 직접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운영된다. 단주 만들기, 소원 연꽃등, 풍경 만들기, 나만의 상상붓다 그리기, 함께 완성하는 소원탑 그리기, 108배 챌린지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 불교전통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포교사 등이 한국어와 영어, 불어로 전시물 해설 등을 진행한다. 참가국 예불 체험도 가능하다. 오전과 오후 하루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몽골과 대만 등의 예불을 경험해볼 수 있다.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캠프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하루 일정을 마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놀이 마당에서는 각국의 전통문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재미있는 한국 전통놀이를 알릴 계획이다.

잼버리대회 참가자와 일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하우스에는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K-푸드가 준비됐다. 메뉴는 잼버리 대회에서 지향하는 스카우트 정신을 담고 불교연맹의 정체성을 고려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종,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식품을 재료로 한 대중적인 음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기업인 베지푸드 업체를 선정, 식재료 협의 중에 있으며 베지핫도그, 떡볶이, 비빔라면, 냉면, 주먹밥 등이 메뉴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연맹장 성행 스님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이자 청소년 포교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불교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5회 세계잼버리는 새만금 부지(8.84㎢)에서 개최된다. 부지면적은 축구장 1200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 정부서울청사 대지면적의 340배에 달한다. 올해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32년만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한국스카우트운동이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라 상징성과 시의성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발달장애인 참사 사슬 끊는 지원체계 촉구

조계종 사노위·장애부모연대
용산역~대통령집무실 오체투지
600명 참가…간절한 염원 표현
"장애인 위한 희망 싹 틔울 것"


사노위는 6월 14일 용산역에서 대통령집무실까지 발달장애인 지원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했다.

"더 이상 죽이고 죽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몸을 던집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 이하 부모연대)는 6월 14일 서울 용산역에서 대통령집무실까지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노위원 스님과 부모연대 회원 등 600여 명은 이날 용산역을 출발,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하며 더 이상 참혹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오체투지에 앞서 동참자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에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 10건 이상이며 올해에만 벌써 5건에 달한다. 극도의 배제와 차별 속에서 무거운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여는 발원으로 단상에 오른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오체투지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체투지는 종교를 너머 우리 사회의 부조리하고 부당함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무언의 저항이자 희망의 몸짓"이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실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의 참극을 멈추고자 한다면, 그들의 한없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자 한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모두의 이기심을 참회해야한다고도 했다. 지몽 스님은 "오늘 우리는 오체투지로 하루에도 수십번 삶과 죽음을 오가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이들의 일상을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지난날을 참회해야 한다"면서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참회한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싹도 틔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체투지에 앞서 발표된 결의문에서 더 이상 참혹한 죽음들이 반복되지 않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이들은 △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및 지원체계 구축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보장 △발달장애인 자립과 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날 600여 명의 동참자들은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용산역 3번 출구에서 대통령집무실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일부 동참자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 법 전합시다' 포교원 캠페인 추진

'전법 ON' 포스터·스티커 제작, 전국 배포

지난달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부처님 법 전하겠다'는 포교 원력을 선포한 조계종 포교원이 이를 뒷받침할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포교원(원장 범해)은 "전법이 포교임을 기치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전법 ON!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캠페인 일환으로 관련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해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주요사찰, 전법중심도량, 포교·신도단체 등 200곳에 배포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포교원이 공개한 '전법 ON' 포스터는 부드러운 그림체의 부처님 아래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인도순례 이후 강조한 원력 '부처님 법 전합시다' 문구를 넣었다. 또한 스티커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다양한 크기를 마련했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도 출시한 '반야의 야단법석'도 함께 선보였다.

포교원은 "앞으로도 '전법 ON!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 실천에 관한 영상과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고양 법문사, 이전 개원 법회 봉행

6월 10일, 청화 스님 등 동참
일문 스님 "서원 밭 되는 참도량"



고양 법문사(주지 일문)는 6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법문사 이전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전 개원법회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점 도량이 되길 발원하는 자리였다.

주지 일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마련한 법문사 도량이 서원의 밭이 되며, 식량이 되며, 서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참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석에 오른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법문사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람을 바르게 하는 도량, 기쁨을 창도하는 도량이 되길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량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문 스님은 대표로 봉독한 발원문에서 △생명이 다하도록 전법하고 △법륜이 항상 굴러 진리가 빛을 발하도록 수행하고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자비향을 완성하도록 정진에 정진을 다하겠다고 발원했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652)에 위치한 법문사는 법당과 공양간, 쉼터 등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열린공간을 갖추고 있다. 고양=임은호 기자

법문사에 불교계 제1호 햇빛발전소 설치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 고양시에 허가 신청

고양 법문사(주지 일문)에 불교계 제1호 햇빛발전소가 설치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부설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이사장 종범)은 최근 고양시로부터 42.48kw용량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법문사에 제 1호 발전소 '비로자나고양햇빛발전소'를 설치키로 했다.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찰이나 불자 가정에서 햇빛이나 바람 같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고 RE100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사장 종범 스님은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불교계에서 사용하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인 RE100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720-1654 임은호 기자



“태고종 외연 확대 추진… 위상 회복하겠다”

특별인터뷰 상진 스님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은… 1991년 4월 철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2011년 11월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졸업했고, 2022년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양주 청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청련사 안정불교대학 강주, 양주불교사암연합회 명예회장, 고려대 불자교육회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오는 6월 27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하루하루가 바쁘다.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곳에는 정치인도 이웃종단 지도자들도 있다. 취임 전임에도 상진 스님이 분주하게 전국을 다니는 이유는 분명하다. 태고종의 외연 확대를 통한 종단 위상 회복을 위해서다.

한때 태고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의 의전서열이 조계종 다음 가는 종단이었지만, 잇달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그 위상은 이전보다 하락했다. 종단 위상을 이전 수준으로 되찾는 것은 어찌보면 태고종도들의 자존심 회복과도 같다. 그래서 지난 4월 18일 열렸던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상진 스님은 62.1%라는 지지율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대체로 박빙 승부가 이어졌던 역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들을 감안하면 상진 스님에게 향한 종도들의 표심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종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에 상진 스님의 어깨는 무겁다. 그래서 당선 이후 매일을 시간을 쪼개가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6월 15일 양주 청련사에서 만난 상진 스님은 이날도 사찰 대소사 처리와 찾아오는 손님맞이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종단적 잠재능력, 태고종이 NO.1!

마주 앉은 자리, 먼저 스님에게 중책을 맞게 되는 심경과 근황을 여쭸다. 상진 스님은 차분하게 답했다.

“2010~2014년 잠시 총무원 소임을 내려놓았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총무원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해왔습니다. 중책을 맡았지만 아직까지는 담담한 편입니다. 인수인계는 현 원장인 호명 스님께서 종단을 투명하게 잘 이끌어 오셔서 크게 검토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는 정계나 종단협 회원 종단 지도자 스님들을 만나는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태고종은 정계나 오피니언 리더 등에 대한 네트워크가 부족했죠. 종단의 외연 확대는 위상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을 거쳐 총무원장까지 당선된 상진 스님은 태고종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 강점을 태고 보우 국사로 이어지는 한국불교 법맥을 계승하는 종단이며, 전통 유 ·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꼽았다. 또한 전국에 3400여 사찰과 25개 교구, 5대 본사를 보유하고 1만여 종도가 현장에서 전법교화 활동을 하고 있는 종단적 인프라가 태고종의 가장 큰 잠재능력임을 스님은 강조했다.

반면, 약점으로는 종단적 구심점 미흡을 꼽았다. 현재 태고종에는 종단적 정책 사업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한 재원이나 인력 구성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게 상진 스님의 지적이다. 상진 스님은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 말하기는 했지만, 나눌 게 없다. 일불제자로서 종도들이 함께 강점은 강점대로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6대 공약, 반드시 실행하겠다”

상진 스님은 선거 당시 공약으로 △문화사업단 설치 및 운영 △지방분권의 확립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운영의 자립화 △징계절차 3심화 부활 등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상진 스님 가장 먼저 시행할 종책으로 꼽은 것은 승려복지 제도 시행이다. 승가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수행으로 시작된 승려생활이 마지막까지도 수행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승려복지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외 활동 통한 종단 네트워크 구축 중
“태고 보우 법통 계승은 태고종 강점
구심점 미흡은 약점… 보완해나갈 것”

대산복지재단 정상화… 승려복지 추진
태고종 유 · 무형유산 발굴 지원 확대
6대 핵심사업 제시… “발전 기틀 마련”
“公心으로 운영… 종도들도 함께 하길”

“운산 스님이 계실 때 설립한 대산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여러 부침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대산복지재단을 정상화해서 승려복지 시스템을 구축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재단을 바로 세우고, 향후 승려 전문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건립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제1번 공약이었던 문화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종단 산하 불교문화문예원을 통해 유 ·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계종에 불교문화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명칭의 기구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문화예술원 산하에 조직을 구성해 각 교구종무원 내 유 · 무형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고 가치를 발굴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려 합니다. 당장 선암사 같은 경우에도 조사할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관련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진 스님은 불교의례의 복원과 전승이 태고종이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태고종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봉원사 ‘영산재’를 비롯해 창원 백운사 ‘아랫녘 수륙재’(국가무형문화재), 양주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 광주 법륜사 영산재(광주 무형문화재 제23호)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구별로 영산재, 수륙재 등 무형유산 공개행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총무원과 연계해 전국적인 불교문화축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996년부터 팔관회를 복원해 시연하려고 했습니다. 종단적 공의와 역량이 모아질 수 있다면 팔관회 복원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특히 태고종에는 의식을 담당하는 어장들이 많은 만큼, 기회가 된다면 팔관회의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교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위해 상진 스님은 총무원장 직속으로 ‘종단 법무지원실(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단 사찰 관련 각종 사법 · 행정적 애로사항을 종단 자문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과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찰 혹은 외부와의 쟁송 등이 발생했을 때 종도들이 안심하고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종단 내 행정지원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각 교구를 방문해 종도들과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총무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6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종단 발전의 기틀을 놓겠습니다.”

오로지 公心으로…

상진 스님은 종단 운영 기조로 ‘공심(公心)’을 강조했다. “공심으로 사심이 없이 총무원을 운영하겠다”는 게 스님의 원력이기도 하다.

“지금 종단에는 공심을 가진 종도들이 필요합니다. 저부터 오로지 공심으로 살아갈 겁니다. 종도들도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잘하면 종단이 잘 된다’는 마음으로 전법포교하고 수행 정진했으면 합니다. 제가 회향할 때에는 태고종이 공심으로 운영되는 종단이 되길 바랍니다. 더 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공심으로 운영되는 종단의 토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말미, 상진 스님은 ‘남의 흉을 보거나 질책하지 말고, 도리어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기자에게 당부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흉을 보면 닮기 마련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을 닮아야지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이는 속인에게도, 출가인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남의 흉보다는 장점을 보고 포용하는 것, 그게 화합의 길일 것이다. 오늘도 상진 스님은 공심으로 화합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암 종헌대종사의
역사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일시
불기 2567년(2023) 6월 29일(목) 오후 1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주제
만암 종헌대종사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전화 061-392-7502
www.baekyangsa.com



개회
-. 인사말씀(무공스님, 백양사 주지)
-. 치사(진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제1부 주제 발표 : 만암의 생애와 사상
좌장 : 미산스님(상도선원 회주)
-. 제1주제 발표 : 금강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만암 대종사의 수증과 불교사상」
토론 : 만당스님(불갑사 주지)
-. 제2주제 발표 : 김상영(前 중앙승가대 교수)
「만암 종헌의 생애와 활동-1928년 이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 :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제2부 주제 발표 : 만암의 불교정화와 교육활동
-. 제3주제 발표 : 김광식(前 동국대 특임교수)
「만암 불교정화의 재인식」
토론 : 이재수(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제4주제 발표 : 황인규(동국대 교수)
「만암의 교육활동과 의의」
토론 :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
-. 제5주제 발표 : 이재형(법보신문 편집국장)
「만암대종사의 행장과 관계된 몇 가지 검토」
토론 : 이성수(불교신문 기자)

호압사, 서울 서남권 전법도량 발돋움 박차

6월 15일, 금천 · 관악구 공무원불자회 연합법회 개최

첫 4개 불자회 참석 눈길
중창불사 일환 법회 개최
서남권 중심의 불사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호암산 호압사가 서남권 전법 거점도량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서울 호압사(주지 현민)는 6월 15일 금천구 · 관악구 공무원 불자회(이하 금관공불회)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금관공불회 법회는 구청 불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연합법회로 금천구청불자회(회장 김미화, 민원실장)와 관악구청불심회(회장 하용배, 의회사무국장), 금천경찰서 경불회(회장 송재찬), 관악경찰서 경불회(회장 박재순)가 함께 구성했다.

이들은 법회에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법문을 들었으며 법회 후 호압사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다과를 함께 하면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법회에는 주지 현민 스님이 법사로 나와 각종 민원 업무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불교 마음공부법을 전하고, 유구한 한국불교 역사를 이어가는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직장에서 활발하게 임무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현민 스님은 "사람이 미운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커져서 생겨나는 것"이라며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만히 관조하여 내려놓고, 조금씩 마음을 내면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법문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불교는 수천년간 이어오며 꿋꿋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이루고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는 종교로 나서고 있다. 여기 모인 불자 여러분은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존재"라며 "민원업무를 맡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항상 응원하는 스님들과 불자도반들이 있음을 잊지 말고 불자 한명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후 주지 현민 스님과 최상원 신도회장을 비롯하여 참석한 공무원 불자들이 전법합시다를 외치고 있다.

법회 후 하용배 관악구청불심회장은 "불자공무원들은 항상 민원업무를 볼 때 불교의 자타불이 사상을 염두하고 민원인의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며 응하고 있다.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에 임하겠다"며 "오늘 처음으로 금천구와 관악구 기관의 불자들이 함께 모여 법회를 본 만큼 앞으로 지역교류와 기관교류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과 자리에 참석한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도 불자회가 구성되어 36명의 불자시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탐진치 삼독을 멸하는 길에 함께 도반으로 정진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호압사 금관공불회 합동법회는 호압사의 중창불사 일환으로 외형적 불사와 함께 전법포교의 역량을 함께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호압사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설화가 깃든 천년고찰로 한양 천도에 따른 수도 안녕을 기리는 비보사찰로 창건됐다. 하지만 관악산 자락의 개발제한에 걸려 각종 신축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평가,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정도로 불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조계종 호법부장인 현민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며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불사 물꼬를 텄다.

호압사는 이에 힘입어 역사문화 콘텐츠와 더불어 강의와 참선 공간으로 사용하는 '심검당(尋劍堂) 확장 신축불사'를 30억원 규모로 추진, 극락전과 관음전, 일주문 부근 광장과 상설 문화공연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암학당, 인문학강좌 및 명상법회를 시작하고 지역민의 소나무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호압사 신도회가 진행해오던 '무료 국수공양'을 재개한데 이어 지역사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상원 호압사 신도회장(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전법합시다'라는 종단의 기치에 맞게 산중고찰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찰이 되기 위해 주지 현민 스님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함께 의지를 모으고 있다.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일배'로 세계엑스포 유치 기원

부산불교교육대학, 송상현광장 일원서 법회

6월 11일, 부산시청 광장까지
화엄승가회 · 총동문회 150명
부산시민 행복과 발전도 기원
박형준 시장도 감사인사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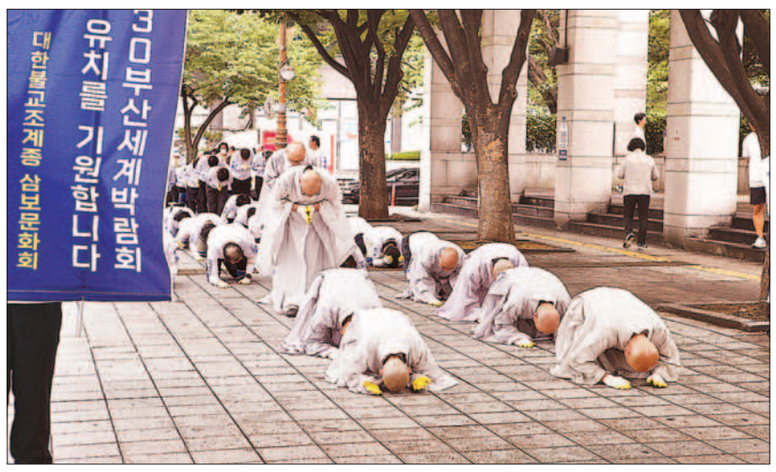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기원하는 삼보일배 정진이 이어졌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6월 11일 부산 송상현 광장 및 부산시청 일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삼보일배 대정진법회'를 개최했다.

부산엑스포는 인류의 문명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의 과제 및 미래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장으로써 세계박람회 기구가 공인한 행사다. 인류의 산업, 과학기술 발전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의 역량을 과시하기 때문에 경제 · 문화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면 지역 균형발전과 뛰어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글로벌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부산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하고, 유치를 기원하는 부산시의 간절한 바람에 힘을 실어주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삼보일배는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출발해 부산시청 광장까지 이어졌으며, 참석한 150여 명의 대중은 목탁 소리에 맞춰 절을 하고 한 발씩 나아갔다. 대중은 부산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합장한 채 걸음을 옮겼으며, 석가모니불을 정근을 하며 바닥에 이마를 댔다. 스님들의 가사장삼은 흙탕물로 지저분해졌고 이마에는 낙엽과 먼지가 묻었으며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거리에서 삼보일배를 올리는 스님들.

부산시청 광장에 도착한 대중은 시청을 바라보며 축원을 올리면서 기도 원력을 모으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정진법회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화엄승가회 소속 스님들이 동참했으며, 송숙희 부산시여성특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서병수 국회의원 및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은 먼저 발원문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자비로운 세상, 풍요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살기 좋은 부산, 불국정토 부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발원한다"며 "앞으로 우리들은 불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무애행을 실천할 것이다"고 발원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시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삼보일배 정진법회를 봉행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지금 우리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며 "삼보일배 후에도 박람회 유치를 위해 기도를 이어가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송숙희 부산시여성특보가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현재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 민간, 기업뿐 아니라 특히 종교계에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며 전국 각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오늘 진행된 삼보일배 정진대법회가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생명 가치 알린 청소년 활동 감사"

부산생명나눔, 백일장 시상식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6월 11일 부산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제15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부산생명나눔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 백일장을 개최하고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공동주관했다.

시상식에서 운문 부문 이연우(금정중), 산문 부문 이가은(장산중)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 및 은상, 특별상 등 총 21명이 수상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생각하고 글로 담아내기 위한 시간이다"며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며 수상한 모든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과 함께한 진해 산사음악회

진해 대광사, 운성 스님 출판 기념



진해 대광사(주지 무경)가 6월 10일 대광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23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산사음악회는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의 책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와 음악회로 진행됐다. 운성 스님은 출가 후 60여 년 동안 시와 수필 등 문학으로 포교 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선가의 이야기〉 〈님께서 오신날〉 〈누가 그리는 그림일까요〉 등을 출판했다.

운성 스님은 "글을 쓰는 것은 부처님의 불국정토를 표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자 승려의 역할로 생각했다"며 "부처님은 그리움의 대상이고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다. 부처님을 모시며 한 순간 느끼는 감정들을 담아 표현하며 대중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글이다. 오늘 북콘서트는 대중과의 만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음악회는 반야 찬불단의 음성 공양 및 대중가수 정미애와 나건필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청소년은 댄스팀 일루션과 보컬팀 Take L이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호국영령 숭고한 희생 기억"

진여원, 부산 현충공원에서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봉행


진여원은 6월 9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 내 호국추모탑에서 '제25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9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 내 호국추모탑에서 '제25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행사 1부는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전수자인 동암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의 호국영령 위령재가 진행됐으며, 2부 본행사는 △개회 △헌시 △왕생극락기원 등 밝히기 △육법공양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왕생극락 발원문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및 장학금 전달 △인사말 △내빈 추모사 △추모법문 △폐회 및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추모법문을 맡은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5000년 동안 뿌리내린 우리 터전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호국정신으로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고 후손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호국영령들을 기억하고 애국정신을 알리는 일에 정진해 주길 바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좋은 세상으로 극락왕생하기를 축원드린다"고 말했다.

남보타월 원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초개와 같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호국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자 우리 지역 북구의 뜻있는 각계인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이 영원한 휴식과 안녕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고 대한민국 보훈가족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진여호국영령위령재 유공자 및 보훈의달 유공자 표창에서 진남수 진여호국영령위령재 추진위원회 봉행부위원장과 김성대 진여봉사단이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순애 진여봉사단 자원봉사팀장과 김종진 봉행부위원장이 부산지방보훈청장 표창을 받았다. 그 외 전재수 국회의원 표창 및 김도읍 국회의원 표창, 북구청 유공자표창 등을 수여하며 유공자 및 가족들을 격려했다. 보훈 유자녀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김나혜(혜화여고) 외 총 12명의 학생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3부 작은음악회에서는 7376부대 군악대의 군가, 신나라 색소폰의 연주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영제 스님, 동암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남보타월 진여원 원장, 정인자 진여봉사단 회장, 하승범 추진위원장,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 오태원 북구청장, 김도읍 · 전재수 국회의원,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 차돌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및 보훈가족과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기원

금정중 반야불자회 33명 참배



학교법인 금정학원 금정중학교(교장 박명규) 반야불자회가 6월 10일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원력에 동참했다. 반야불자회는 금정중 학부모 불자 모임이며 이날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을 위해 이석언 금정중 교법사를 비롯해 회원 33명이 참가했다.〈사진〉

마애불 앞에서 반야불자회는 석가모니불 정근 후 축원문을 낭독했으며 마애부처님이 바로세워지기를 기원했다. 아울러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천일기도에 동참하며 기도법사 단장 환풍 스님에게 입불에 대한 계획과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석언 교법사는 발원문을 통해 "천년 불국토의 땅 경주남산 마애불이 원형대로 훼손되지 않고 바로세워지기를 간절히 발원한다"며 "이번 불사를 통해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로 회향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혜경 반야불자회장은 "누워계신 부처님의 미소를 보고 환희심이 가득한 시간이었다"며 "마애부처님은 문화유적을 넘어 신앙의 상징이며 바로세우기는 성스러운 불사다. 꼭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지리산 화엄사 정기 받으며 '요가 삼매경'

구례 화엄사,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축제

전국 요가인 500여명 참여해
전문 요가강사 강의들 이어져
印대사관, 전통춤 '까딱' 선봬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천년고찰 화엄사의 맑은 기운이 함께 하는 요가 축제가 열렸다.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는 6월 10일 대웅전과 각황전, 보제루 앞마당에서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를 봉행했다.

'화엄, 천년을 세우다'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지난 202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를 맞이했다.

전국에서 모인 500여 요가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인도대사관 인도문화원이 인도 전통춤인 '까딱'을 선보여 요가 참가자와 일반인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다. 이어 대한요가회 요가 시범팀과 국악 연주팀이 함께 맞춘 '요가 콜라보'는 해금과 가야금 등 전통악기와 현대 요가를 접목한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특별 순서로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지인 선수의 리듬체조 시범 순서는 행사의 백미로 손꼽히기도 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리산이 뿜어내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가를 통해 몸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화엄의 뜰에서 새롭게 생동하는 '화엄의 꽃'으로 일체가 함께 피어나는 시간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요가 축제를 통해 코로나의 환란을 극복한 국민들에게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가 전달돼 모두의 가슴속에 지혜가 깃들기를 서원한다"며 "세계평화를 위한 희망의 날갯짓이 곳곳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리산 대화엄사는 6월 10일 대웅전과 각황전, 보제루 앞마당에서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를 봉행했다.

수린더 바가트(Surinder Bhagat) 주한인도대사관 부대사는 축사를 통해 "요가는 심신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고대 인도의 수련법이자 인도의 문화유산"이라며 "정신없이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요가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문 요가 사범의 지도에 따라 직접 요가 동작을 체험하고 그 의미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더운 날씨에도 양산과 요가를 접목해 산사에서 아름다운 요가축제가 이어졌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요가축제와 함께 이날 참가자들은 사찰에서 마련한 사찰음식을 먹으며 행사는 성료됐다.

요가대회에는 다양한 계층과 가족 참가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인근 군부대에서 이날 요가대회 위해 부대에 참가신청을 한 31사단 칠의대대 주은성 상병은 "고찰인 화엄사에서 사범 선생님들의 요가를 따라하면서 '휴식'과 '평안'을 느꼈다. 앞으로 부대에서도 요가를 해보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는 전라남도, 대한체육회, 구례군체육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전라남도요가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구례군, 전라남도체육회, 주한인도대사관, 주한인도문화원, 불교리더스포럼, 대한요가회, UN세계요가의날 한국행사조직위원회가 후원하고 중흥건설, 진주한일병원, 신정종합건설, 프랑스와즈, TS샴푸, 구례약산수, 맑은소리 맑은나라가 협찬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태평양전쟁 희생 한국인 영령 천도재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희생된 한국인 2170위 영령에 대한 천도재가 경남 양산 불광사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6월 13일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산 불광사가 주관하고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가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전쟁한국인 희생자 영령 천도재는 월인 대종사를 증명 대법주, 청봉 대종사를 법주, 종정협의회 각 종단 종정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됐다.<사진>

이날 행사를 주관한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은 "2019년도까지는 부산 금정구 시립 영락 공원내에 있는 태평양전쟁 위령비 앞에서 천도재를 봉행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자 영령 위패를 불광사로 봉안해와 천도재를 25년동안 봉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2만여 명의 한국인 희생자 발생했다. 이들이 서방극락정토로 천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장 월인 스님은 추도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언젠가는 없음으로 돌아가는 무상의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군국주의 국가의 무모한 야욕으로 희생당한 호국영령님들은 오온이 공함의 이치를 자각하고 피안의 열반정도에서 열반락을 누리기 바란다"고 설했다.

(사)대한불교교종 종정 월성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세상을 정화하고 자비와 평화로써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불교지도자들의 사명과 책임"이라며 "전쟁 없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항상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염원과 기도로써 정진하자"고 말했다.

천도재 후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오는 음력 10월 중 대종사와 명사 품수식을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 종정협의회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전의 청사에 교육기관을 개설할 것을 결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근현대 대강백 백운당 지흥 스님 추모다례재

6월 15일 담양 용흥사서 봉행
진우스님 "종단 미래위해 정진"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은사인 백운당 지흥 대강백(1934~2020)의 3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6월 15일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 다례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등 종단과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단 중앙종무직 부장스님과 백양사, 범어사 문도스님 등 300여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조사를 통해 "스승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오는 것"이라며 "제자인 진우 스님의 종단 총무원장 소임으로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것이 '청출어람'의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큰스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경애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도 "지흥 대강백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은 여전히 밝은 등불이 되어 후학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고 계시다. 종단의 정화이념을 실천하셨든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여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여러 후학들이 종단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큰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정법안장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6월 15일 전남 담양 용흥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근현대 불교 대강백인 백운당 지흥 스님 3주기 추모 다례재.

문도를 대표해 진우 스님은 "지금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포교에 달려있고, 종단과 불교의 미래를 위해 전법에 매진하여 정진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백운당 지흥 대강백은 1934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4년 석산대종사를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했다. 광주서중과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52년 범어사에서 동산 대종사의 상좌(上佐)로 입실했다.

동산 대종사의 시자(侍者)로 3년간 시봉하며 범어사 강원과 통도사 강원에서 수학했다. 이후 스님은 여러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1971~77년 화엄사 강주로, 1977~79년에는 범어사 강주를 지냈다. 1980년 송광사에 강원을 개설했고, 1982~88년 범어사 강주로 후학을 양성했다. 스님은 생전 저술 활동에도 매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왜곡된 가야사 복원 방안 살피다

가야불교진흥원 제8회 가야문화진흥학술대회

왜곡된 가야사를 바로잡고 가야불교사를 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 여여정사 주지)은 6월 11일 김해문화원 대강당에서 제8차 가야문화진흥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복기대 인하대 대학원 융합고고학 교수의 '헝클어진 가야사' 주제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후 SATI INSTITUTE 수석연구원 붓다빠라 스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에는 △허황후는 만들어진 신화인가(김명옥 교수, 건국대), △弁(곳갈) 가야와 불교(문광희 교수, 동의대) △수로왕과 가야불교의 시작에 관한 고찰(지원스님, 가야불교연구소) 등이 발표됐다. 토론은 이동주 교수(동아대)와 인해 스님(통도사 승가대학장), 김용준 교수(고려대)가 참여했다.

복기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가야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을 6가지로 정리하고, 가야사 복원에 대해 △〈삼국유사〉를 참고해 가야사 정리 △가야와 임나를 구분 △자연환경과 교역 측면을 고려 등을 제안했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향유한 문화강국 가야를 말할 때 가야불교를 제외하고 말하기 어렵다. 가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가 해를 거듭해옴에 따라 가야와 인도의 교류 가능성은 물론 가야불교의 역사성은 더욱 선명해졌다"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야문화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마음으로 연구하고 탐색해나가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신선한 연구와 토론들이 가야문화의 복원을 한걸음 앞당기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자비명상, 불교역사 제자리찾기에 힘보태

(사)자비명상총동문회 전법결사(이사장 마가)가 6월 15일 안성 굴암사에서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이하 불제본) 후원 전달식'을 개최하고 본부장 송탁 스님에게 259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카톨릭의 성지화 조성 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교 왜곡을 바로 잡고자 애쓰는 불제본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탁 스님은 5월 31일 진행된 (사)자비명상총동문회 전법결사 특별수행에서 강의를 통해 주어사와 천진암, 광화문 일대, 해미읍성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톨릭 성지화 조성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대응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회원들간에 모연이 진행됐다.

자비명상은 이사장 마가 스님은 "불교가 왜곡돼 가는 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완도 신흥사 삼층석탑 봉안

완도 대표사찰인 신흥사(주지 법공)에 삼층석탑이 세워졌다.<사진>

6월 11일 신흥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2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신흥사 삼층석탑 점안식과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점안한 삼층석탑은 김동교 신도회장의 원력과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2022년부터 석등 1개와 3층석탑을 조성해 이날 완공했다.

법요식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과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신흥사 주지 법공 스님 등 백양사 문도스님들과 김동교 신도회장,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일수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양사의 팔층석탑과 신흥사 3층석탑은 서로 연결돼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 석탑을 통해 신도들이 수행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거제 계룡사 대웅전 복원 기공식

지난 1월 3일 취객의 어처구니 없는 방화로 소실된 거제 계룡사 대웅전 복원 기공식이 봉행됐다.

거제 계룡사(주지 선암)는 6월 11일 거제 계룡사 대웅전터에서 대웅전 복원 신축공사 기공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웅전 복원 기공식에는 계룡사 주지 선암 스님, 현근 스님, 청계사 선공 스님, 금강사 성원 스님, 신광사 선안 스님, 서일준 국회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윤부원 거제의회의장, 윤성원 신도회장, 하요종 재가불자회장, 김국년 거제불교청년회장을 비롯한 불자들이 참석했다.



새로 신축되는 대웅전은 총 공사비 25억원의 예산으로 목조 외 7포 내 11포의 3칸 팔작 기와지붕으로 48평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가 진안지역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일천만 원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전달했다. 또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사랑의 돼지 저금통 50개를 함께 전달했다.<사진>

6월 15일 진안군청(군수 전춘성)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진안사랑장학회 인재양성 장학금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갑룡장학회에서 전달한 장학금은 2021년 진안사랑장학회(이사장 전춘성)와 마이산탑사가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만 원, 총 5000만 원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이날 3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장학금이 지역 인재 육성의 초석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한국불교종정협의회' 창립

(사)한국불교종정협의회(초대회장 법정)가 창립됐다.

(사)한국불교종정협의회는 6월 11일 대구 동구 성낙사 대법당에서 창립 및 초대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근본조계종, 한국불교선조계종 등 7개 종단 종정들이 모여 협의회를 창립한 것이다. <사진>

이날 창립법회는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예전 스님의 개회선언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헌화 및 헌향, 경과보고, 초대회장 대관식 및 법어 순서로 봉행됐다.



초대회장 법정 스님은 법어를 통하여 "큰 꿈을 품고 힘차게 출범하는 뜻깊은 날이다.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초심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롯이 붙들어 항상 변함없이 정진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배철완 대구경북지사장

광주BBS 사장에 김대원 광주라마다 회장



광주BBS 신임 사장에 김대원 광주라마다호텔 회장<사진>이 임명됐다.

재단법인 BBS 불교방송은 BBS광주불교방송 제3대 사장에 김대원 라마다플라자 광주·충장호텔 회장(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대원 사장은 앞서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사장으로 추천됐다.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한 김 신임 사장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자문위원, 광주관광재단 이사,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관광협회 이사,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앞서 지난달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으로도 추대됐다.

김대원 신임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겸 광주불교방송 사장은 "광주불교방송의 설립목적과 방송이념에 맞게 초발심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광주불교계의 숙원인 불교회관 건립불사를 완수해 광주불교방송을 불교회관으로 이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원 사장의 임기는 2023년 6월 8일부터 2027년 6월 7일까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티베트 고대 불교 패엽경 복원 '박차'

1천여 권 필사본 존재 확인
2006년부터 복원 사업 착수
패엽경 스캔으로 디지털화
맞춤형 보관함 등 장비 마련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에 전승돼오는 고대의 불교필사본들에 대해 전통기법과 첨단과학을 함께하는 복원사업이 진행돼 화제다. 6월 8일 중국 '신화통신'은 티베트에서 진행되는 고대 불교 경전 복원 사업을 보도했다.

현재 티베트에 전해오는 고대의 불교 필사본들은 고대 인도와 티베트의 불교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자료는 종려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패엽경 필사본들이다. 이 필사본들은 인도불교의 마지막 시대에 제작되어 티베트로 전해된 것으로 현재 1천여 권이 넘는 필사본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낱장으로만 약 6만 장이 넘어가며 세계에 현존하는 고대 패엽경 필사본의 60~80%를 차지한다. 패엽경 필사본들은 티베트의 건조한 기후와, 필사본들을 한 권씩 보자기에 싸서 서가에 보관하는 티베트의 전통 보존법 덕분에 잘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다양한 이유로 경전들이 흩어지거나 훼손되면서 대대적인 보존과 복원이 필요하게 됐다.

노르부 링카 고서 조사팀의 규메출팀 팀장은 2006년부터 티베트의 패엽경 필사본의 수집과 복원 및 보호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6년간 패엽경을 수집하기 위해 티베트 전역, 총 1만 7천여 km를 여행했다. 패엽경이 있다고 알려진 곳이라면 사찰, 유적지, 개인가정을 막론하고 방문했다"며 수집 당시의 고충을 전했다.


라싸의 티베트 박물관에서 규메출팀 팀장이 종려나무 잎 경전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출처=신화통신

규메 팀장은 "대부분의 필사본 상태는 완벽하지만 곰팡이나 벌레로 훼손되거나 아예 썩어버려 내용을 판독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이 경우엔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 수리하고 있다. 이후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패엽경을 스캔하고 디지털 아카이빙으로 데이터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전 티베트의 문화재 보호 부서는 예산 문제로 모든 보호 부서가 기술 실험실과 유물 복원실을 공유했다. 그러나 2013년 티베트 문화유적 특별예산이 편성되면서 10만 위안(한화 약 1800만 원)이상의 문화재 보호와 과학적인 연구 장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옛 문헌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보관함과 환경 모니터링 장비도 마련했다.

연구팀은 "옛날에는 훼손된 필사본을 단순히 다시 제본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지금은 천연재료를 이용해 종려나무잎을 한 장씩 분리하고 찢겨진 곳들을 수리한다"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되어 글자가 흐릿한데다 한 번의 오역이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헌과 상호 비교하며 분류한다"며 복원과 연구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연구팀을 이끄는 규메출팀은 티베트 전역의 6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티베트의 서예와 고대문헌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 중 일부는 선생님이 되었고 티베트의 지역 문화의 새로운 계승자가 되었다. 그는 "지혜와 근면, 노력을 통해 선조들이 보존한 문화유산이 현대 문명사회에서 계승, 보호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불교 중국화 시도…종교 자유 해쳐"

인디아웨스트, 중국 공산당 불교 수출화 시도에 우려

종교 ·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중국화(中國化)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불교는 중국의 토착 종교"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디아웨스트(India West)는 6월 13일 "중국 공산당이 불교를 인도에서 기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중국으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중국의 토착 종교'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2021년 12월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종교 공작회의'에서 중국 중심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9가지 임무를 지시했다. 종교를 중국화하고, 신도를 당 주위로 단결시키며, 사회주의 종교 이론을 발전시키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당국의 경제적 · 정치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종교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불교에 대해서도 강력히 통제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는 네팔 정부의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원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나라의 불교 유적지와 중국의 불교 유적지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인디아웨스트가 중국 정부의 "불교는 중국의 토착 종교"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출처=인디아웨스트

인디아웨스트는 "중국은 풍부한 불교유산을 활용해 전 세계 불교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등 불교를 활용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독특한 형태의 외교를 채택했다"며 "세계 불교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인디아웨스트는 "중국의 이 같은 종교의 중국화가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전 세계 불교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쇼핑몰 12m 대형불상서 봉축법회

인도네시아 청년불자회 주관으로
5월 31일~6월 4일, 웨삭데이 법회
'중도의 화합' 주제로 대중 행사도

지난 6월 7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남방의 부처님오신날인 '웨삭 축제'를 보도했다. 올해 웨삭 축제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렸다.

불교의 보편적 가치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부처님을 경축하며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트리수치 웨삭(Trisuci Vesak, 3가지 청정함,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위한 행사였다. 올해 웨삭 축제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의 대형 쇼핑몰인 뚠중안 플라자에서 봉행했으며 '중도의 화합'이라는 주제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일련의 행사를 마련했다.

청년불자회 관계자는 "트리수치 웨삭을 위해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묘사한 디오라마와 아쇼카왕 석주를 제작했다"면서 "특히 높이 12.3m에 달하는 대형 불상은 인도네시아 실내에서 가장 높은 불상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망과 발원을 적을 수 있는 서원 나무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참여를 높였다"면서 인도네시아의 문화, 사회 종교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동자바 전통 춤, 서자바의 전통악기 앙클룽(Angklung) 연주, 터키의 수피 춤, 중국의 장갑 인형극, 사자 춤 등 매력적인 문화 공연으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의 대형 쇼핑몰인 뚠중안 플라자에서 웨삭데이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인도네시아 청년불자회

수라바야 시장 칵크 에리는 "수라바야는 청년불자가 이끄는 곳이다. 어디로 향할지 알 수는 없지만 수라야바의 미래는 모두 청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연설했다. 인도네시아 제22대 종교부 장관 루크만 하킴 박사는 "청년불자회에 의해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친숙한 매체를 통해 종교적 가치가 어떻게 공유되고 전달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며 축사를 전했다.

청년불자회는 "일반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불교의 보편적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이 축제는 종교 간, 문화 간 협력을 위한 열린 플랫폼으로 구성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특히 수라바야와 그 주변 지역 내에서 차이 속에서 관용을 확립하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법회 의의를 표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청년불자회는 불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사회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불교 단체를 설립해 청년 불자에게 전법하고 포교사를 양성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인니 정부, 보로부두르 관광 산업 확대

관광부 장관 "수년 내 2천만 관광객 유치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사원인 보로부두르 일대 관광 산업과 관련한 대통령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6월 13일 자카르타글로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관광부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보로부두르 관광 산업을 위해 '단일 목적지 관리 조직에 대한 대통령 규정'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로부두르를 '제2 발리'로 육성하겠다며 '최우선 순위 목적지'로 선정하고 인프라 개발, 관광 명소 개발, 마케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까지다. 당국은 이번 '단일 목적지 관리 조직에 대한 대통령 규정' 마련을 통해 보로부두르 사원 일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디아가 장관은 "아세안(ASEAN) 국가의 불교 인구는 4200만 명에 달한다"며 "보로부두르는 앞으로 수년 안에 2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세계 최대 사원 보로부두르.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작년 한 해 동안 240만 명의 아세안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지난 2021년 52만 8226명보다 큰 폭 증가한 수치다. 당국은 현재 2023년 내 850만 명의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보도부두르 관광 산업을 발판 삼아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광산사 성운대사 입적 후 첫 번째 책!
다시 원화한 인생을 열다
빈곤하게 태어나 평생 정규교육을 못 받았으나 스스로 배우며 인생을 개척해 온 성운대사가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를 인생 여정과 함께 들려준다.
성운대사 지음, 이승준 옮김/사륙배판/208쪽/값 16,000원

열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Nibbāna in Theravāda Perspective
상좌부불교에서 본 열반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천도재와 49재 여법하게 지내기!
영산재·각배재의범
오종범음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자기산보문, 작법귀감,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요집, 석문의범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결정판!!
편찬 해사/사륙배판/양장/3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나이 듦’ 대한 사유, 매체로 구현하다

탑골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나의, 나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까지 10주년 기념전 ‘나의, 나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오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사진, 영상,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현한 작품을 관람객이 노인의 삶을 은유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전시하고 있다.

이번 기념전은 탑골미술관이 서울노인복지센터 안에서 세대통합에 기여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노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외현하고자 ‘이야기청’과 함께 기획했다.

‘이야기청’은 노인의 삶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예술창작으로 이어나가는 청년 예술가 그룹으로 2017년부터 지역과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기획자, 연구가 등이 함께하면서 지역 내 노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탑골미술관 10주년 기념전 ‘나의, 나이’는 ‘이야기 청’의 육끼, 이지연, 황호빈 시각예술작가가 참여했다.

탑골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나의, 나이’의 작품들은 탑골미술관과 ‘이야기청’ 작가 그룹이 함께 약 2개월 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450여 명의 어르신들과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를 듣는 사전 워크숍을 통해 노인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전시 작품 중 영상으로 재구성된 ‘닮고 다른 나이들’ 작품은 각자 다른 보폭, 속도, 방향으로 생을 걸어온 노인들, 그

사진·영상·드로잉 등 작품 ‘다양’

노인들 일상·기억·경험·관계 등

청년 예술가들 감각으로 재구성

리고 매일 노인들과 마주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전시장 곳곳에서 마주하는 ‘단 한마디’의 문장으로 구성된 작품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들이 삶을 수행하면서 제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다른 높낮이로 배치해 관객으로 하여금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탑골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에 전시된 작품들.

이 외에도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노인의 얼굴을 기록해 전시장 벽면을 둘러싼 ‘기록되지 않은 무명:우리, 그리고 나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실로 엮어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는 ‘만인만상’ 등의 작품을 통해 수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서울노인복제센터에서 감지되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시 제목인 ‘나의, 나이’는 ‘나이’라는 것이 숫자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삶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단순히 노인 개인의 나이가 아니라 탑골미술관의 10년의 경험과 시간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탑골미술관 관장 희유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스쳐가고 마주치고 관계하며 쌓여진 탑골미술관의 1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나의 나이’가 있는 전시로 노인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나이는 삶의 흔적이자 정체성임을 알고, 다양한 세대가 ‘노인’에 대한 관심과 경청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탑골미술관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을 위해 2013년 5월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미술관으로 개관했다. 개관 이후 지역사회와 세대를 잇는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topgoal), 페이스북(www.facebook.com/Topgoal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용성 대종사 ‘대각선’ 고찰 나선다

법안정사·대각사상연구원 탄신 160주년 학술세미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백용성 대종사〈사진〉의 ‘대각선(大覺禪)’을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목동 법안정사(주지 법수)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6월 25일 오후 1시 법안정사 2층 관음전에서 백용성 대종사 탄신 1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백용성 대종사 대각선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는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대각선 연구’를 비롯해 허정선 동국대 철학박사의 ‘백용성의 참선포교’,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용성선사의 법거량’,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의 ‘용성진종 선교관의 특징’,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의 ‘대각회 자료DB구축의 성격과 전망’,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의 ‘만일참선결사와 봉암사 결사의 비교’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흑산도 무심사지서 통일신라 건물지 확인

대흥사·불교문화재연구소, 6월 14일 발굴현장 설명회


흑산도 무심사지에 출토된 금동불상 발편.

신안 흑산도 무심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가 확인됐다.

대흥사(주지 법상)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6월 14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무심사지에서 무심사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흑산도 무심사지는 상라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창건연대 및 폐사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무심사지에는 삼층석탑과 석등이 남아있으며, 지표조사와 기존 발굴조사를 통해 ‘무심사선원(无心寺禪院)’명 기와편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무심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사역확인과 중심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실시됐다. 조사 결과 사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동, 축대 6기, 석렬 4기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중심사역의 통일신라시대 금당지는 고려시대 중기 건물지 아래에서 중복된 상태로 확인됐다.

출토 유물은 인화문 토기편을 비롯해 금동불상 발편, 중국제 도자기편, 연화문 막새편 및 ‘중원갑진년육월조(中元甲辰年六月造)’명(1244년) 막새편 등이 출토됐다.

무심사지 주변 상라산성, 제사터, 관사터 발굴조사에서는 중국제 동전과 도자기가 다수 확인돼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동아시아 남방항로의 해상무역 거점항으로 흑산도가 이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금당지에 대한 확장 발굴조사와 주변 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흑산도의 고대 동아시아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제21회 유심작품상에 정찬주 ‘아소까대왕’

고두현·민병도·구중서 선정 오는 8월 11일 만해축전서 시상


정찬주


고두현


민병도


구중서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21회 유심작품상에 정찬주 소설가의 ‘아소까대왕’, 고두현 시인의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민병도 시조시인의 ‘낮은 풀을 이기지 못한다’를 선정했다. 前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인 구중서 문학평론가는 특별상을 받았다. 부문별 상금은 각 1500만 원이다.

정찬주 소설가의 ‘아소까대왕’은 현대불교신문에서 연재됐으며, 아소까대왕이 무자비한 정복 군주에서 불법의 수호자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좇는다.

심사위원단은 “정찬주 소설가의 역사소설 〈아소까대왕〉은 치밀한 자료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아소까가 살았던 시대의 물리적 공간과 문화적 감성, 풍속, 제도 같은 것들을 밀도 높게 잘 재현하고 있다”면서 “작가의 유려하고도 탄탄한 문장과 곳곳에 산견되는 시적 진술들은 심오한 불교의 교의를 다룬 이 작품의 문채(figura)를 더욱 빛나게 하여 읽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상찬했다.

한편, 제21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만해축전 기간인 오는 8월 11일 강원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시로 만나는 지암 종욱 대종사

월정사성보博 특별전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특별전 ‘조계종의 수호자 지암당 종욱 대종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암불교문화재단과 월정사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종사의 유품 50여 점과 사진, 그리고 관련 기록들이 공개된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등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며 나라와 종단, 불법 수호에 헌신한 대종사의 삶을 유품과 사진, 기록으로 느껴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4~6/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사유수	6	요가 수트라(아헹가 요가 시리즈8)	B.K.S.아헹가/현천	선요가
2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7	오늘 담마빠다 한 구절(법구경과 함께 하는 365일 마음일력)	일아/김경연	불광출판사
3	요가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1)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기도용 자비도량참법(약본)	운허/행복선원	운주사
4	가시를 거두세요 :소나무 스님의 숭늉처럼 속 편한 이야기	광우	쌤앤파커스	9	해탈장엄론(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감뽀빠/진우기	운주사
5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불광출판사	10	불교입문(조계종 신도 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책세상

주옥같은 부처님 말씀, 관조·사유하다



부처님 인생응원가
정찬주 지음
동국대출판문화원
1만5000원



동국역경원 〈불교성전〉서 길어 올린
금과옥조 경구, 특유 감성으로 '사유'
이불재 풍광과 어우러진 사유 좇으면
어느덧 작은 힐링 순간들이 찾아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 말씀은 불자들에게는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다. 하지만 그 경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진다. 우리는 그 말씀을 곱씹고 명상하고 사유하며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사유를 참조하며 공감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전남 화순 쌍봉사 인근의 작은 산당 이불재(耳佛齋)에서 자연에 깃들어 살아가는 작가 정찬주는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스스로 명상하고 사유했던 결과들을 담아낸 〈부처님 인생응원가〉를 최근 발간했다.

정찬주 작가의 명상산문집 〈부처님 인생응원가〉는 동국역경원 〈불교성전〉에서 길어 올린 주옥같은 경전 구절에 이불재를 품은 자연, 그리고 작가 특유의 담박하고 따뜻한 사유가 더해졌다. 이를 통해 〈부처님 인생응원가〉는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불재의 일상을 간접적으로나마 함께하며 잠시나마 치유의 시간을 갖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기도 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순간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펼쳐낸 작가의 따뜻한 시선은 복잡한 머릿속에 찰나의 청량함을 선사하는 쉼표를 던진다.

책 속 이불재의 일상은 매순간 정답고 한가롭다. 봄에는 벚꽃과 홍매화, 여름엔 수련과 노란 창포, 가을엔 배롱나무 붉은 꽃이 마음을 간지럽힌다.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고 벼 이삭 익어가는 향기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겨울이다. 겨울엔 부쩍 손님의 발길이 잦다. 밤새 내린 눈을 대나무비로 쓸다 보면 풍경소리와 함께 반가운 얼굴이 사립문 너머에 닿는다.

정 작가는 책을 일컬어 "남도산중 이불재에서 생활하면서 사유한 것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가져와 조견(照見)해 보고 내 나름대로 스스로 갈무리한 글"이라 소개했다. 이불재 마당을 거닐고 사립문을 여닫는 일상에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냈고, 계절의 변화를 보고 만지고 들으며 찰나의 생각을 경구에 녹였다.

그리운 이와 문자와 서신으로 안부를 나누는 순간에도 부처님 법문이 함께 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저 소소하지만은 않다. 〈불교성전〉에서 찾아낸 부처님 가르침에 정찬주 작가 특유의 사유가 더해져, 찰나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인생응원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기준으로 4부로 구성됐다. 〈불교성전〉에서 추려낸 구절들은 '부처님 말씀과 침묵'으로 인용했고, 앞뒤로 '마중물 생각'과 '갈무리 생각'을 담았다.

구절을 '부처님 말씀과 침묵'으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 정 작가는 "내가 느낀 바를 비추어 본 거울 같은 부처님 말씀들"이라며 "굳이 말씀과 침묵이라고 한 까닭은 말씀 너머 침묵의 의미까지 헤아려보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중물 생각'은 작가가 이불재에서 날마다 맞닥뜨리는 유·무정물을 보고 느낀 바를 메모해 둔 글이며, '갈무리 생각'은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본 내 사유를 소소한 일상에 녹여 낸 생각들이다.

"누구나 다 현실존재로서 각자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을 터. 그런데 때로는 그 일상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기 마련.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을 거울삼아 자신을 묵묵히 비추어보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을 펴내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그러한 소망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작가의 말

작가의 산방 이불재의 다른 명칭은 '무염산방(無染山房)'이다. 이는 정찬주 작가의 영원한 스승 법정 스님이 내려준 명칭이다.

〈부처님 인생응원가〉에는 작가가 이불재에서 체득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無染)' 깨달음도 담겼다. 매 순간 어딘가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염'의 순간이다. '부처님 말씀과 침묵' 속엔 그 '무염'의 이치가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수련 꽃은 어린아이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고 있는 듯 하다. 함박꽃은 50대 농부 부부가 논에 모를 심고 나서 웃는 모습이다. 자주달개비 꽃은 어린 여중생들이 교복을 입고 웃으면서 재잘거리고 있는 듯하다. 노란 창포 꽃은 저물녘마다 범종을 치는 스님의 소박한 미소 같다. 나는 기어코 뒤뜰에 핀 장미꽃 두어 송이를 화병에 꽂고서 웃는다. 얼마 전에 입적한 틱낫한 스님께서는 미소 짓는 순간에는 누구라도 부처님이 된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사랑도 미움도 초월한 꽃과 같은 분이 아닐 수 없다."

–여름,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좀 불행한 일이다. 거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이다. 아집의 감옥을 경계해야 한다. 모르고 있는 것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침묵할 때 세상은 비로소 입을 연다."

–여름, '태산목 꽃그늘 아래서'

"이래저래 시간은 흐르고 옥잠화는 또 지고 말겠지. 무심히 피고 지는 옥잠화야말로 나에게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문 〈금강경〉으로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고 산스끄리뜨 금강경으로는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내라'라는 뜻이다. 설산의 눈처럼 깨끗한 옥잠화가 무심히 피고 지듯 아무리 좋은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만 되지 않을까 싶다."

–가을, '자비심이 곧 여래다'

불안·두려움 다스리고 초조하지 않는 법



금강경 마음공부
페이융 지음
허유영 옮김
유노북스/1만7000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고, 얻고 나면 지키고 싶어 한다. 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는 실패를 걱정하고, 지키고자 할 때는 잃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욕망, 걱정,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더 바쁘고 피로하게 만든다. 어떻게 하면 초조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라.'

금강경은 부처와 제자들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머물게 된 일화와 밥을 먹기 위해 걸식을 하는 이유로 시작한다.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사는 문제부터 세상에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고, 흥분되고 초조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인생의 방향과 목적, 편견과 정견, 인간관계, 삶과 죽음까지 부처와 제자들의 일화를 통해 걱정, 두려움, 불안을 다스리고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금강경은 번뇌가 찾아와도 빠른 번개가 내리꽂히듯 깨뜨려 날려 버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져서 그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2500년 전 부처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푼 것이 〈금강경 마음공부〉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처 사상을 대중에게 쉽게 전한 불경 연구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페이융 교수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인 금강경을 가장 탁월한 해설로 담았다.

어떻게 하면 금강경의 지혜를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 헛된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는 집이 없어도, 걸식을 해도, 심지어 자기 살을 도려 내도 편안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진실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 걱정, 두려움도 없었고 초조하지 않았다.

바쁘고 피로하고 외로울수록 초조해지기 쉽다. 〈금강경 마음공부〉는 이럴 때 차분히 읽으면서 초조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이를

30년간 불경 연구한 페이융 교수
금강경 속 오래된 지혜 풀어내
"통찰력 기르는 데 디딤돌 될 것"

통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와 인생을 대할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주어지는 질문들에 먼저 생각해 보거나, 질문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는다면 자신의 마음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 인생살이에 위로가 필요할 때, 통찰력을 기르고 싶을 때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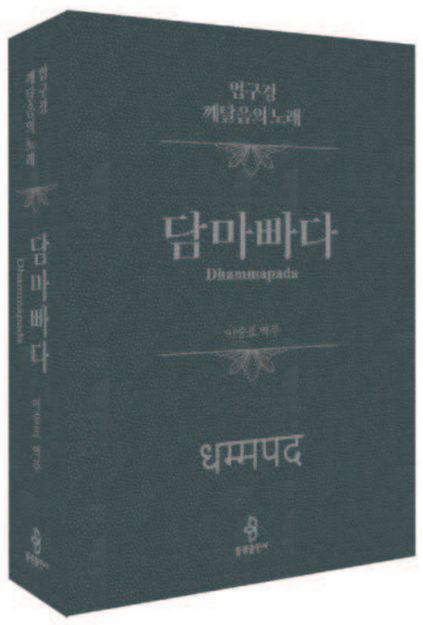
▲저자 **페이융**은?

중국 대표 불경 연구가다. 현대시, 장아이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서와 산문집 〈남쪽으로 걷다〉 등을 발표했다. 반야심경을 해설한 〈반야심경 마음공부〉, 아미타경을 해설한 〈아미타경 마음공부〉, 법화경을 해설한 〈법화경 마음공부〉, 육조단경을 해설한 〈불안하지 않게 사는 법〉 등 불교 경전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일련의 저서들은 저자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교수의 첫 완역 책!

《담마빠다(Dhammapada, 법구경)》!

법구경 깨달음의 노래



담마빠다 Dhammapada

이중표 역주
480쪽
25,000원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읽은 불교의 고전(古典)
《담마빠다》 빠알리어 원전을 고스란히 옮기다
우리말 담마빠다의 새로운 표준!

딱 한 권 불경을 읽어야 한다면 《담마빠다》를 읽어라!
가장 바른 《담마빠다》를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담마빠다》는 8음절로 이루어진 운문 형식이기 때문에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 단어를 배치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의 번역에는 종종 의미가 모호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역자는 이 번역에서 원전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고 명쾌한 의미를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_머리말 중에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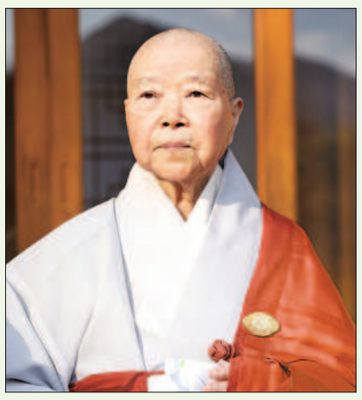
비구니계 '밝은 별'이 들려주는 삶

〈明星〉



명성 스님 수행록
김광식 지음 / 불광출판사
2만5000원

명성 스님 구술 · 회고 집대성
세수 94세 어른스님의 이야기
한국 비구니사 정립 초석 기대
관응 · 탄허 · 자운 스님 등 인연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법호와 법명 단 네 글자만으로 한국 현대 비구니사를 상징하는 스님이 있다. 바로 법계 명성(法界 明星)이다. 올해 세수 94세인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사진〉은 우리나라 비구니계의 산증인으로서 삶이 곧 역사다. 비구니계의 원로이자 가장 큰 어른인 명성 스님이 그동안 배출한 비구니만 2200여 명. 전체 비구니 6000여 명 가운데 30%를 넘는다.

생애 자체가 기념비적인 명성 스님의 구술과 회고를 집대성한 책 〈명성 스님 수행록〉이 나왔다. 지난 2019년 스님의 구순을 맞아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처음으로 20권 분량의 〈법계명성전집〉을 낸 불광출판사가 다시 명성 스님의 이야기를 펴냈다. 지은이는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

이미 스님의 전집이 발간됐지만 수행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책을 쓴 이유는 명확하다. 명성 스님이 현대 비구니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육성 증언에 의한 회고록은 없기 때문. 그동안 발간된 대부분의 증언 자료집이 주로 비구스님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저자의 열의를 불태우게 했다. 또 이렇게 정리한 명성 스님의 구술은 한국 비구니사 정립에 초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책은 크게 △1부-회고로 본 나의 삶 △2부-인연으로 본 나의 삶으로 나뉜다. 1부는 스님의 가족 관계부터 유년시절, 출가생활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았고, 2부에선 관응 · 탄허 · 자운 · 경봉 등 한국불교에서 내로라하는 큰스님들과 있었던 일화를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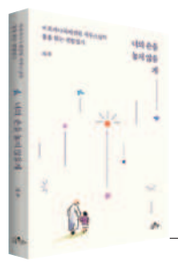
명성 스님은 193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1952년 합천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3세 되던 해, 대강백으로 손꼽힌 부친 관응 스님이 출가의 길을 권유한 것이다. 이후 명성 스님은 1958년 선암사에서 성능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고, 선암사와 청룡사 강원 강사를 거쳐 1970년 운문사 승가학원 강사로 취임했다.

1977년부터 운문사 주지 겸 학장으로 주석하면서 현재까지 2200여 명의 졸업생과 23명의 전강제자를 배출하는 등 비구니 수행과 교육에 헌신했다. 아울러 40여 동에 이르는 전각과 요사채를 신축 · 보수해 운문사를 전국 최대 규모의 비구니교육기관인 운문승가대학으로 발전시켰다.

명성 스님은 또 최초로 비구니가 비구니로부터 전강을 받는 전통을 만들어 한국 비구니사에 한 획을 그었다. 1983년 명성 스님은 평소 존경했던 화산당 수옥 스님에게 법제자로 위패 건당을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만들고, 1985년 흥륜 · 일진 스님 두 제자에게 전강을 함으로써 기둥을 만들었다. 이 전강 의식은 비구니 역사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비구니 강사가 배출돼 비구니를 직접 가르치는 이부승 제도가 되살아났기에 끊어졌던 강맥을 복원한 명성 스님의 업적은 더욱 빛을 발했다.

〈명성 스님 수행록〉은 명성 스님이 한국 근현대 불교를 관통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직접 생생한 구술로 풀어놓은 회고담이다. 여기에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는 김광식 교수가 정리해 하나의 사료집으로도 가치가 높다.

자우 스님의 통통 튀는 전법일기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스님 / 사유수출판사
1만7000원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부처님 당신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및 국제포교 활동에 열정을 쏟아온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스님이 포교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사연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출가 30년. 자우 스님은 그중 도심포교에 20년을 보냈고 그 사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문에 자신만의 열정적인 포교 이야기를 솔직 · 경쾌하게 연재해 왔다. 그리고 그간 공개된 신문 연재물들에 '출가' 이야기를 덧붙여 70편의 에피소드를 자신의 첫 에세이집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에 담았다.

자우 스님은 지난 2006년, '불교의 세계화'와 '불교인재 양성'을 발원하며 서울 홍제동에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님의 포교활동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겠다는 출가 원력을 잊지 않는 자비심과 보살행의 여정이었다.

참선과 영어를 접목한 프로그램인 어린이 영어담마스쿨, 영어담마캠프, 영어참선법회 등으로 외국인과 어린이 청소년의 불교적 인성 개발에 힘썼다. 참신한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면서 한편으로는 열악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 환경을 돕고자 비구니 스님 수행공동체 '나란다수행관'을 개관했다.

캄보디아 '꼭꺽 초등학교'를 건립하며 기본교육을 받기도 어려웠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도 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과 맑은 고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우 스님에게는 늘 화두였다. 스님은 자신의 첫 에세이집에서 절실한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고뇌와 환희심 그리고 세상에 대해 하염없이 솟구치던 가슴 벅찬 사랑을 통해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했다고 회고한다.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에는 그동안 소중한 인연들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었던 마음이 담겼다. 현장에서 겪은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이 특유의 솔직함과 경쾌함으로 다가온다.

자우 스님은 "책을 통해 솔직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누군가는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을 맺게 되고 또 누군가는 출가의 길로 들어서서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친구가 되길 희망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반도의 중심' 강화는 어떤 섬일까?



나를채우는섬 인문학 강화도
노승대 · 김성환 · 강영경 외 12인 엮음 / 불광출판사 / 2만 원

하늘 · 땅 · 사람에 새겨진 이야기에서 반만년 역사 속 주연인 강화와 만나다

강화하면 쉽게 떠오르는 키워드 몇 가지가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부터 단군, 고려, 팔만대장경,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가장 오래된 사찰 전등사, 문장가 이규보, 고인돌, 강화순무 등 역사와 인물 그리고 먹거리가 생각난다. 이게 다일까? 〈나를 채우는 섬 인문학 강화도〉는 단순한 사료적 지식 나열에 하나씩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더해 전혀 다른 새로운 강화의 면모를 드러낸다.

'마니산 참성단은 단군을 위한 제를 지내던 곳'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런 오해는 접어두자. 참성단은 단군을 제사하던 평양의 단군사당과 황해도 구월산의 삼성사와 성격이 다르다. 단군은 마니산 참성단에서 하늘을 향해 제를 올린 제사장이었다.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1950년의 인천상륙작전을 결행한 맥아더 장군보다 130여 년 먼저 상륙작전을 시도한 장군이 있다면 믿을까? 1866년 강화를 침략했던 프랑스군을 물리쳐 병인양요를 끝낸 인물이 바로 양헌수 장군이다. 그는 정족산성에서 반격의 서막을 계획하고 포수로 구성된 조선군 500명과 함께 강화해협 건너 정족산성서 벌인 전투로 프랑스군을 돌려보냈다.

그런가 하면, 강화는 뛰어난 인재들의 고향이자 한 나라의 행정을 책임진 수도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최연소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건창은 고승들의 찬을 썼고, 『능엄경』을 달달 외웠던 천재 문장가 이규보는 서쪽을 바라보며 강화에서 눈을 감았다. 게다가 한양과 서울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수도였던 곳도 강화다. 고려의 수도일 때 고려인들은 강화에서 팔만대장경을 기획하고 만들었다. 뿐만 아니다. 강화주민은 집에서 많은 신을 포용하며 신과 함께 살고 있고, 기독교는 강화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인천에 상륙한 성공회의 첫 조선인 신자는 강화주민이었고, 가장 오래된 성공회 한옥성당이 강화에 있다.

이 모든 서사가 〈나를 채우는 섬 인문학 강화도〉 한 권에 집약됐다. 여행서처럼 가벼운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서처럼 고리타분하지 않다. 한 권의 매거진처럼 산뜻한 디자인 속에 단행본의 알찬 지식이 담겼다. 두 번, 세 번 다시 볼수록 진한 여운을 주는 영화처럼 강화의 새로운 맛을 보여주는 책이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강화행 버스에 올라탄 자신을 상상해보는 것도 설레는 일이다.

임은호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강화도는 섬이다. 바람 부는 섬이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는 역사의 흔적이 실려 있다. 강화도의 해안이나 내륙에는 어딜 가나 과거의 유산이 숨 쉬며 역사를 노래한다." 26p

최초 '만파식적' 고고학 답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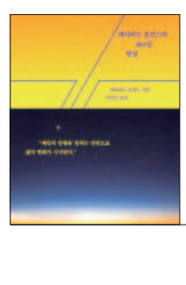


일상이 고고학 나혼자 경주여행2
황융/ 책읽는 고양이
1만9900원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경주 여행2〉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기록돼 있는 설화 만파식적을 주제로 선보이는 최초의 고고학 답사기로 경주 곳곳을 직접 찾아가 그 역사적 의미를 고증함으로써 독자에게 진정한 고고학의 묘미를 전한다.

지금까지 만파식적의 의미를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경주라는 공간에서 각각의 유물과 유적, 또 그것들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과 장면이라는 수많은 구슬을 꿰어 하나의 결과물로 선보인 적은 없었다. 황윤 작가만의 남다른 호기심과 삼국시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아니었다면 결코 접할 수 없는 독창적인 역사 여행 아이템이라 하겠다. **임은호 기자**

영적 스승의 지혜를 읽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365일 명상
데이브드 호킨스 지음
박찬준 옮김 / 판미동
1만9000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가르침을 담은 명상 잠언집. 25개국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의식 혁명〉 〈놓아 버림〉 등 기존 10여 권의 저서에서 366개 구절을 엄선해 하루에 하나씩 읽어 나갈 수 있게 구성된 책이다.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감을 주는 짧은 문장들, 그리고 집중을 돕는 50여 장의 아름다운 사진을 담아 누구나 손쉽게 명상에 잠길 수 있다. 호킨스 박사의 가르침을 접해 왔던 기존 독자들은 물론 처음 접하는 독자들까지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읽어 가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성찰의 지침서가 돼 줄 것이다.

임은호 기자

유불선을 꿰뚫은 한국 정신문화의 큰별 탄허 스님의
『주역』, 『논어』, 『치문』, 『서장』 등 주옥같은 명강설!!

이 책은 탄신 110주기 열반 40주기에 문자로 들려오는 탄허 스님의 생생한 육성 법문 그 자체다. 근 40년간 수백 개의 테이프에 채록된 채 아직 세상 빛을 보지 못한 탄허 스님의 육성 법문을 녹취하고 주석을 달아 문자로 되살렸다. 『주역』은 물론 『논어』, 『맹자』, 『도덕경』 등 여러 고전과 『치문』, 『서장』, 『선요』, 『도서』의 핵심을 유불선의 깊은 지혜로 꿰뚫은 강설은 막힘없이 명쾌하다.



강설탄 허
주석 이승훈
후원 월정사
504쪽 | 양장본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2 뉴델리에서 며칠 ③

▶한줄 요약

수도에 매진하던 난타는 손타라를 만나 마침내 파계를 하게 된다. 파계 현장을 들킨 손타라는 제석천왕의 검을 뽑아 난타를 찌르고 자신의 목을 찌른다. 보름달이 뜬 날, 법상에 오른 붓다는 한 자루의 칼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검을 지혜의 검, '아디카야'라고 했다.



정체 드러내는 지혜의 검 '아디카야'

그래도 이석원은 머리를 내젓다가 자꾸만 귀찮게 하자 어느 날 난타가 남겼다는 칼을 찾아 떠나버리고 말았다.

정우 스님은 떠나는 이석원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대의 칼을 찾아오십시오. 그 칼이 주인을 만나 스스로 몸을 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이오?

-왜냐면 우리들의 법만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돌아와 불법을 망치는 마구니들을 그 칼로 베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조실스님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입을 열었다.

-정우 스님은 그길로 한국으로 떠났는데 아마 지금도 이석원을 개조로 하여 종단 설립을 꿈꾸고 있을 게요.

-그럼 금어스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겠군요?

-알고 있소. 내가 알렸으니까. 사정이 있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오. '그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헤어지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이석원이 사라진 후 어머니를 잃은 정우 스님의 딸 미순이도 어딘가로 떠나버렸다. 이석원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갔다는 말도 있고 정우 스님이 살았을 때 탁발한 곡물을 보시하던 나환자촌 봉사원으로 갔다는 말도 있었다.

조실이 말을 끝내고 쩝 하고 혀를 찼다. 나는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모르겠구나. 정말 모르겠구나. 돌아와 다시 이석원의 글을 읽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다. 역시 글은 읽기가 쉽지 않았고 성가셨지만, 문맥을 만들어가며 끈질기게 읽어나갔다.

아디카야의 검이라 하여라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난 난타는 그 후 오로지 자신의 완성을 위해 수도에 매진했다. 속세의 손타라가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견성의 길은 멀고 멀었다.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으면 자연히 생각은 손타라에게로 달려갔다.

그때까지도 몰랐다. 손타라가 기다리다 못해 교단으로 자신을 찾아올 줄. 붓다를 찾아온 궁의 친인척 중에 그녀가 끼어 있었다. 난타는 미칠 듯이 반가웠다. 속세의 남편을 마주 쳐다보는 손타라는 눈을 내리깔고 눈물만 흘렸다.

저녁 공양을 끝내고 난타는 뜰로 나아갔다. 기회를 엿보던 손타라가 다가왔다. 난타는 누가 볼 것이 두려워 그녀를 끌고 구석으로 피했다. 그녀의 냄새와 손길에 난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자연히 두 사람은 부둥켜안았고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파계였다.

수양이 덜 된 난타로서는 한 번 그녀를 탐하자 색욕은 용서가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틈만 나면 그녀를 찾았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은밀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대의 얼굴에서 화장이 마르기 전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미안하오. 미안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십시다.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려.

-도대체 왜 붓다는 이 세상에 나타나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을 참느니 그를 죽여 버리고 싶어요.

-손타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오!

그녀는 착하고 아름다웠지만 강인하기로 소문난 무장 집안의 딸이었다. 강인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리디여려 보여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물러서지 않는 여자였다.

-가십시다. 멀리. 붓다가 우리를 찾지 못할 곳으로. 아무도 우리를 몰라보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십시다.

-나도 그러고 싶소. 이곳을 뛰쳐나가 그대와 함께 돌아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소.

붓다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붓다는 순식간에 그들을 대중이 운집한 대강당으로 옮겨 놓았다. 난타가 잠시 정신을 놓았다가 이상한 기운에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다. 붓다를 중심으로 한 대중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붓다의 십대 제자 중에서 계율을 맡은 우바리가 눈을 부릅뜨고 다가왔다. 난타는 손타라를 밀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앉았는데 우바리의 노기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범행을 닦는 수행승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손타라가 이를 뽀드득 갈았다. 이를 갈던 손타라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지도 않고 단상에 꽂힌 장검을 향해 달려들었다. 바로 불법을 호위하는 제석천왕의 검이었다.

-어찌 우리들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능멸하십니까? 그러고도 붓다라 할 수 있습니까? 그대의 가르침은 사랑이 아닌가요? 이것이 중생을 향한 그대의 사랑인가요?

검을 빼 들은 손타라가 붓다를 향해 겨누며 소리쳤다. 검은 머리가 이마를 덮었고 머리카락 몇 올이 입가에 물려 있었다. 붓다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붓다가 말이 없자 손타라가 다시 소리쳤다.

-우리들의 사랑 위에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외치는 이 위선자야. 나는 아직 우리들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본 적이 없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의 미망을 팔아 자신의 위세를 일삼는 만행보다는 크다!



비로소 붓다가 눈을 떴다. 벌거벗은 손타라의 칼끝이 자신의 정수리에 닿아 있었다.

언제였던가? 꼭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다. 문수사리. 그가 겨눈 칼끝. 지은 업에 따라 지옥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백 보살들에게 설하고 있을 때 중생을 괴롭히지 말라며 칼을 들고 일어섰던 문수사리.

아아, 그날처럼 이 아이도 미물이 곧 불성(佛性)임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나….

-불성이 닦이지 않으면 미물은 자신들의 사랑만 안다. 최고의 사랑이 이 우주에 가득 찼음에도 그것을 깨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미물의 작은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제 세상은 보았을 것이다. 너희들로 인해서 미물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공평한 것이다.

-더러운 이상주의자. 세상을 구하겠다는 신심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하나도 감동스럽지 않다. 내 영원히 미물의 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미물로 남을 것이다. 저 산야에 이름 없는 꽃의 향기로 이 세상이 있음을 아셔야지.

-하찮은 산야의 꽃 한 송이도 이 우주와의 교접을 통해 꽃을 피웠느니라. 이제 우주와의 정사를 꿈꿔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이상주의자의 이상인 것을!

-당신이 뭐라고 한들 내게는 악마의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희망이 없다면 죽음이지.

그녀가 칼끝을 돌려 난타의 가슴을 찔렀다. 난타가 넘어지자 그녀는 칼로 자기 목을 긋고 넘어졌다.

보름이 넘어도 붓다가 든 향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제자들과 대중들은 난타와 손타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다. 붓다는 난타를 깨우치기 위해 그들을 대강당으로 옮겨 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죽여 놓았으니 중생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들 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무장의 딸답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래도 향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바이샤칼의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 법상에 오른 붓다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손타라가 스스로 목을 벤 칼이었다.

붓다가 대중들에게 물었다.

-이게 무엇이냐?

-칼 아닙니까.

대중 속에서 어이없다는 대답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나의 법이다. 일체를 끊어낼 때 비로소 나의 법이 보이리라. 집착을 보면 집착을 잘라내고 욕망을 보면 욕망을 잘라내고 사랑을 느낀다면 사랑마저 잘라낸다. 그때 나의 법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함에 이 칼을 지혜의 검 아디카야라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붓다는 아난을 불러 이것이 나의 법이니 소중히 간직하라 일렀다.

아이슈 무쿠암 행

1

글을 읽다가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앞산은 좀 맑아 보였으나 비안개는 물러가지 않았다. 무슨 꿈을 꾸었더라? 난타, 손타라, 붓다….

그들이 함께 어울려 영화처럼 꿈자리를 어지럽혔던 것 같았다. 이제 그 칼의 존재를 알 것 같았고 그런 칼을 찾으러 갔다는 이석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종일 마음이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노트를 찾아 손타라가 죽는 장면을 찾아 읽고 또 읽었다. 손타라와 붓다의 갈등. 영원히 미물로 남을지라도 사랑을 갈구했던 손타라. 그들의 사랑을 통해 참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붓다….

우계의 비가 그렇듯이 단조롭고 지루한 비가 그치질 않았다. 비가 점점 더 심해져 죽창에 빗물이 튀겨 들어오자 송 서화가가 걸레를 가져다 대었다. 문을 열어보면 하늘 전체가 짙고 낮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를 보고 있자니 이상스런 상념이 나를 사로잡았다. 대체로 알맹이가 잡히지 않는 어설픈 상념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모르게 어젯밤의 꿈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식사를 끝내고 벽을 기대고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낙수 소리가 정겨웠다. 양철집이 보였다. 빗소리가 다닥다닥 들리던 집. 앞으로 개울물이 흐르고 가시 달린 탱자나무로 울이 쳐진 집. 마당에 디딤돌이 놓였고 파초와 감나무가 있었던 집. 아아, 그곳은 나의 집이었다. 내 뼈가 여물던 집이었다. 내 꿈이 자라던 고향 집이었다.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려 뒷산으로 오르면 돌돌 물레 돌아가던 소리.

-할머니, 때가 어느 땐데 모시를 짜요. 시장에 가면 널렸어요. 좋은 모시가 얼마나 싼데….

그래도 할머니는 물레를 돌렸다.

-에미야, 나 죽거든 내가 짠 모시로 싸다오. 아휴 이 모시 냄새!

곱게 미소 짓던 어머니. 모시 집으로 18살에 시집와 시어머니와 평생을 모시를 짰던 어머니.

눈을 떴을 때 송 서화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러다가 이석원을 만나지 못하고 성물이 있다는 곳으로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방안을 서성거렸다. 느닷없는 예감이었다.

오오스마 기자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잠시 뒤였다. 목소리가 밝았다.

-송 서화가님은 어디 나가셨는가요?〈계속〉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⑫ 禪의 시간관, 무주(無住)



▶한줄 요약
윤회는 시간이 변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시간관에서 여유한다.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생사 윤회관이다.

머물지 않는 마음, 수행이자 깨달음

우리에게 윤회는 너무나 익숙하고 공감되는 생사관이다. 윤회 이야기는 사랑과 함께 영화나 드라마, 음악에서도 자주 접하는 주제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윤회는 종교를 막론하고 수용하고 있는 생사관으로 보인다. 유교의 제사나 불교의 49재는 거의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지금은 천주교에서도 49재를 지낸다.

아시아인들이 생사 윤회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관 때문이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보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고 본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늙고 죽으면 그 영혼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절에서는 재를 지내고 유가 전통에서는 제사를 지내어 그 혼을 위로하고 다음 세상에 잘 태어나기를 빈다. 그렇게 하여 가까운 사람의 영원한 이별의 슬픔을 달랜다.

시간의 가치

이처럼 윤회는 시간이 변하여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시간관에서 연유한다.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생사 윤회관이다.

윤회의 입장에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며, 시간과 공간이 융합된 세계관으로는 전생(前生), 금생(今生), 내생(來生)의 견해가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세(三世)라 하는데 세밀하게 나누면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불교에서는 전세, 현생, 내세로 나눈다.

이렇게 변하고 흘러가는 시간은 인간에 가장 소중하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시간이 아닐까?

왜 시간이 소중한가? 시간은 모든 존재,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 만물이 변하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죽는다. 태어나면 죽으니 태어난 뒤 죽음은 필연이고 시간 문제다. 까닭에 태어나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다만 죽음의 시기는 다 다르다.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사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찍 죽는다. 또한 세월호나 이태원 거리 압사와 같은 사고와 재앙, 그리고 6.25전쟁이나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이유로 죽는 경우가 있으니 사람은 태어나서 알 수 없는 죽음의 순간까지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한편 시간은 돈이나 금은보화 등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소중하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 재산과 권력으로 죽음을 연장하는 시간을 어찌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시간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부자나 가난한 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시간은 평등하게 주어진다.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와 윤회 문제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경전에서 삼세와 윤회의 괴로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또한 부처님이 전세에 인욕행을 닦은 보살이었다는 〈전생담(자타카)〉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당신 자신의 전생 수행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셨다. 이런 근거로 볼 때 부처님은 전생과 현생에 대한 윤회를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삼세 윤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윤회에서 해탈하는 열반의 깨달음도 말씀하셨다. 부처란 이름이 인도말로 '붓다(Buddha)'라 하는데 우리말로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다. 부처란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 윤회에서 해탈한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니 깨달은 이의 가르침인 불교는 생사 윤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모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진리[法]를 중도(中道), 팔정도, 연기(緣起), 삼법인, 무아(無我), 무상(無常) 등 다양하게 표현하셨다.

중도란 '나와 일체 만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도로 존재하는 일체 만물은 연기다. 연기란 일체 만물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서로 의지해서

과거·미래는 허망한 분별심
오직 오늘, 지금 순간일 뿐
본래 없다는 선에서 시간관
부처님 무상과도 바로 일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체 만물이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란 없다고 하여 무아(無我)라 한다. 중도 연기, 무아로 존재하는 일체 만물은 늘 변하니 이를 무상(無常)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은 이 중도 연기를 바로 보아 '나'라 할 것이 본래 없다는 무아, 무상을 깨치고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한 것이다.

〈금강경〉의 정견, 무아의 지혜

부처님은 조계종이 소의경전으로 받드는 〈금강경〉에서 수보리 장로가 '깨달음으로 가려는 이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는 물음에 '나라는 사상(四相)을 비우고 마음을 써야 한다'고 하신다. 사상은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생각으로 나라는 아상(我相), 내가 사람이라는 인상(人相), 내가 중생이라는 중생상(衆生相), 나의 영혼이 있다는 수자상(壽者相)을 말한다. 즉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는 아상이나 '내가 사람'이라는 인상, '내가 중생'이라는 중생상, '내 영혼이 있다'는 수자상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는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화두 참선법인 간화선을 창안하신 대혜선사 진영, 중국 아육왕사 조사당.

더 나아가 부처님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고 설한다. 부처님이 깨치고 알려준 무아(無我)의 법을 깨친 사람은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별하는 마음이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관념일 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이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눈이 열린다.

부처님이 이처럼 무아 법을 말씀하시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했으니, 전생과 내생의 윤회는 어떻게 되는가? 남방 승가의 전통에서는 내가 있다고 보고 내가 전생에서 내생으로 생사 윤회하면서 무아의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을 말한다.

禪에서 시간관과 정견

북방 승가의 전통인 선종에서는 시간과 윤회에 대하여 어떤 입장일까?

간화선이라는 화두 참선법을 창안하신 대혜(大慧, 1089~1163) 선사는 〈서장〉(누추밀 중훈에게 답함)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망령되게 과거법을 취하지 말고, 또한 미래 일에 탐내어 집착하지 말며, 현재에도 머무는 곳을 두지 말고, 삼세(三世)가 다 비었음을 통달하라.(〈화엄경〉)'고 하셨습니다.

과거 일의 혹 선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면 도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교하면 광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일이 앞에 오거든 혹 거슬리고 혹 좋더라도 또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하면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일체시에 인연을 따라 맞게 대응하면 자연스럽게 이 도리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혜선사가 어느 재가자에게 정견을 세우고 참선하는 법을 일러준 편지이다. 이 글에서 선사는 부처님의 〈금강경〉 말씀과 같이 지나간 과거와 미래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한 현재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한다. 오직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삼세가 실체가 없고 연기, 무아라는 것을 통달하라 한다. 이렇게 정견을 세우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어떤 것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에서 보는 시간관이다. 과거니 미래니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으로 허망한 분별심일 뿐이다. 과거는 영원히 돌아 갈수 없고,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도 또한 잡거나 머물지 못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님은 일체가 무상(無常)하다고 하였다.

그러니 과거니 현재니 미래라 할 것이 본래 없다는 선에서 보는 시간관이야말로 부처님의 무상이라는 시간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법을 바르게 공부하여 삼세가 모두 실체가 없다는 정견을 세워야 한다.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분별심을 떠나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바른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삼세와 내가 본래 없다는 정견을 세우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여 삼세 윤회를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단박 깨침, 돈오돈수를 알면…

그런데, 이와 같이 불교의 중도연기법에 정견을 세우고 수행하면, 설사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우주 만물에 의지하여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이대로 완전함에 눈을 뜬다.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 함은 분별심이고 착각일 뿐이다. 나라 할 것이 없는 본래 완전한 중도로 존재하는 나를 알게 되면 정견이 서서 아직 내 안에 분별망상이 있더라도 크게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없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선에서 깨달음을 돈오요 돈수라 함은 이런 이유로 말하는 것이다. 내가 본래 완전하기 때문이 이대로 본래 부처다.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 함은 착각일 뿐이니 그 착각 망상에서 단박에 깨어나면 단박에 닦아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선종의 깨달음 돈오돈수다. 돈오란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과 미망에서 본래 완전함으로 깨어남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자연과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불자들의 직접행동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불교환경연대 부설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찰이나 가정에서 햇빛이나 바람 같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옥상이나 지붕,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불교계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불자들의 직접행동,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불교 RE100을 앞당기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1구좌 5만원이며 탈퇴 시 돌려드립니다. 수익금은 신규 발전소 설치에 사용하거나 사찰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환원합니다.

주차장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면 차고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화창한 날에는 그늘과 전력을 제공하고 눈비 오는 날에는 차량을 보호해 줍니다.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건물 누수 방지 및 냉난방 단열효과도 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에 연락주시면 어렵고 복잡한 신청에서부터 설계 시공까지 책임지고 설치해드립니다.

♣ 문 의 : 010-4232-2206
♣ 홈페이지 : vrcn.idanah.net


녹색사찰 울산 백련사

비로자나 자연에너지협동조합 natural energycooperative

조합원 가입

홈페이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계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우슬, 황칠, 두충, 가시오가피, 울금, 참당귀, 쇠비름, 독활, 마가목열매, 개다래열매,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⑫ 경주 불국사 대웅전 용가(龍架)



▶ 한줄 요약
법당 대들보에 길게 걸려 있는 횃대는 '용가(龍架)'라 부르는 불교 목조각이다. '반야용선대'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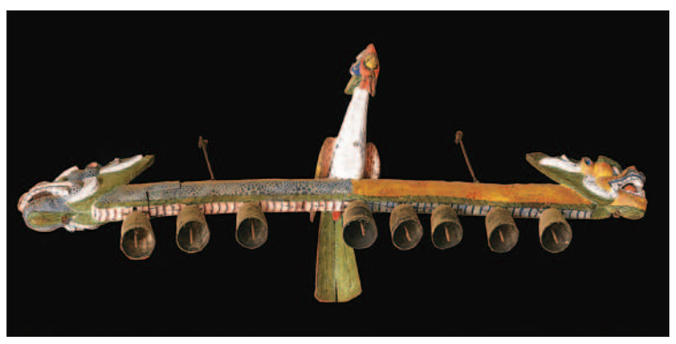
극락 가는 반야용선…불교적 설치미술 '용가'

용가(龍架), 용 형상의 횃대

한국산사 몇몇 법당 내부의 대들보엔 특이한 목조각이 달려 있다. 용 형상을 갖춘 원형, 또는 사각형 긴 나무막대다. 용 형상의 간짓대는 대들보 방향으로 앞뒤 두 쇠줄에 매달려 있다. 천정에 매달린 막대 조형은 횃대 이미지와 겹쳐진다. 횃대는 옷을 거는 긴 나무막대다. 때때로 대나무로 제작하기도 한다. 법당 대들보에 길게 걸려 있는 횃대는 '용가(龍架)'라 부르는 불교 목조각이다. '반야용선대'라고도 부른다. '용가'라는 개념은 '용 형상의 횃대'라는 의미다. 개념에 조형의 생김 그대로를 반영했다. 용가 목조각은 간단하다. 긴 막대인 횃대를 다듬어 채색하고 그 좌우 끝에 끼워 넣는 두 용머리를 조각하면 된다. '용머리-횃대-용머리' 구조를 가진다. 두 용머리를 따로 조각해서 'ㄱ'자형 용머리와 'ㅡ'자형 횃대를 좌우에서 결합한다. 횃대는 두 용의 공통 몸통 역할을 한다. 횃대로 두 용의 몸통을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횃대를 절반씩 나눠 각 용의 몸통을 표현하는 대칭형 방식이고, 둘째는 서로의 몸통을 나팔꽃 덩굴처럼 나선형으로 칭칭 감게 하는 일체형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든 두 용은 서로 다른 색으로 채색한다. 대개 한 용은 초록색으로, 다른 용은 황색으로 칠하여 구별한다.

용가의 구성은 대략 세 가지 정도다. 횃대, 풍경(작은 금속 종), 늘어뜨리는 당(幢) 등이다. 용가에 매단 풍경(風磬)은 염불의식 때 사용하는 요령(搖鈴)과 흡사하다. 영락없는 요령 축소판이다. 풍경의 텅 빈 속에는 못처럼 생긴 쇠공이가 달려 있다. 용가를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들면 요령 소리가 난다. 용가의 몸통 밑면에 풍경을 줄지어 매단다. 용가에 풍경을 몇 개 매다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현존하는 용가에 남아있는 풍경 매단 흔적을 살펴볼 때 풍경 10개를 다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가가 어떤 용도이기에 이토록 많은 풍경을 설치한 것일까? 용가에는 풍경 외에도 다른 의식 장엄구를 매다는 장치가 달려 있다. 용가의 중앙과 좌우 용 조형의 턱 밑에 둥근 쇠고리가 박혀 있다. 어떤 용가에는 늘어트린 줄에 동자가 매달려 있고, 어떤 용가에는 뭔가를 묶어 늘어뜨린 천 조각이 남아 있다. 용가의 목적성을 실증하는 원형은 남아있지 않다. 용가의 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용가를 설치한 위치에서 살필 수 있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 용가


대구 동화사 대웅전 용가


청도 운문사 비로전 용가


경산 환성사 대웅전 용가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용가

불국사 등 전통사찰 10여 곳에 현존

용가는 법당에서 불상을 바라볼 때 향좌측, 즉 서쪽 대들보 밑면이나 측면에 매단다. 법당은 통상 예경을 올리는 의식단을 상중하 삼단으로 편재한다. '상단-정면 중앙-불보살단, 중단-향우측(동쪽)-호법신중단, 하단-향좌측(서쪽)-영가단'과 같이 구성한다. 용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단인 영가단에 설치한다. 영가단엔 영가의 위패를 두고 감로탱을 건다. 49재 등 천도재를 봉행한다. 용가는 영가단의 의례 장엄구의 하나였다. 천도재가 있을 때 용가에 '나무아미타불'이라든지 '나무인로왕보살' 등의 당(幢) 깃발을 걸기도 하고 하얀 지화(紙花)를 내걸기도 했다. 의례 집전 스님은 의식 중간 중간에 용가에서 늘어뜨린 줄을 흔들어 줄지어 매단 풍경을 요란하게 울린다. 풍경의 쨍한 금속성 소리는 영가가 이승과의 집착을 끊고 오직 극락왕생에 오르는 한 길에만 집중하도록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때 용가는 반야용선의 의미를 동시에 가졌다. 종을 매단 횃대를 용으로 조형한 이유도 용가가 나무로 만든 또 하나의 반야용선이라는 상징성에 바탕을 둔다. 그러니까 용가는 요령 같은 풍경을 줄줄이 매단 의례 장엄구이면서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용가가 가진 반야용선의 상징적 의미는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비로전), 대구 환성사 대웅전, 영천 영지사 대웅전 용가 등에 매달려 있는 동자의 표현에서 극적으로 승화된다. 상징성에 낭만성이 결합하여 드라마틱한 서사를 풀어낸다. 그에 따라 용가는 악기의 일종이면서 의식에 필요한 소품을 내거는 횃대이면서 반야용선이라는 중의성을 갖는다. 그것은 예술적 창의성으로 기능성을 종교적 교의 차원까지 적극 해석해낸 성과다. 조형의 단순함에 비해 조형이 간직한 뜻은 깊고도 융숭하다.

용가는 나무로 만든 반야용선
법당의 영가단 대들보에 설치
운문사 용가에 동자 매달리고
수타사 용가엔 극락조 앉아

용가는 현재 10여 점 현존한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 청도 운문사 비로전(대웅보전), 여수 흥국사 대웅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경산 환성사 대웅전, 대구 용연사 극락전, 언양 석남사 대웅전(따로 보관 중),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대구 동화사 대웅전,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영천 영지사 대웅전, 의성 대곡사 대웅전,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등에 남아 있다. 여수 흥국사와 홍천 수타사를 제외하면 모두 영남지방에 현존하는 지역 편중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팔공산 자락의 산사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용가의 길이는 보통 1.8m 안팎이다.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수타사 용가이고, 가장 긴 것은 용연사 용가다. 수타사 용가는 1m를 조금 넘고, 용연사 용가는 극락전 어간 폭을 훌쩍 넘는다. 특히 용연사 용가는 거칠고 투박하다. 그냥 한 그루 나무 자체를 용가로 삼았다. 통상 서쪽 대들보 아래에 대들보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과는 달리 어간의 두 대들보에 걸쳐서 정면 닫집 아래에 뒀다. 풍경도 매달려 있지 않아 용가의 범주에 넣기도 애매할 지경이다.

현존하는 10여 점의 용가는 저마다 독특하고 개성이 뚜렷하다. 주목할 만한 공동 특성이나 용가 저마다가 가진 독특한 개성을 두루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사찰명만 적는다.

△동자가 매달려 있는 용가(매달려 있는 사람수): 청도 운문사(1명), 영천 영지사(1명), 언양 석남사(3명), 경산 환성사 용가(1명).

△용가에 극락조(파랑새)가 앉아 있는 용가: 경주 불국사, 대구 동화사 용가.

△특별한 조형기법: 불영사 용가(판목에 투각), 여수 흥국사 용가(굽이치는 두 마리 용 조형과 횃대를 따로 조각하여 결구).

△용가에 매단 풍경 개수(현존 수/원래 수): 청도 운문사(7/10), 언양 석남사(5/8), 여수 흥국사(5/10), 영천 은해사 백흥암(1/?), 경산 환성사(9/10), 대구 동화사(8/9), 울진 불영사(2/6), 영천 영지사(11/12), 대구 용연사(0), 의성 대곡사(4/10), 김천 직지사(5/10), 홍천 수타사(6/6), 경주 불국사(10/14). 두루 살펴볼 때 용가의 몸통에 매다는 풍경의 개수는 대체로 10개를 표준으로 삼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은 풍경이 매달린 용가는 영천 영지사 대웅전의 용가다. 11개나 달려 있다. 원형대로 남아있다면 불국사 대웅전 용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14곳에 풍경을 매단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 극락조, 용을 소재로 한 용가

한국산사 법당 장엄의 한 장르로 조영한 용가의 전형으론 경산 환성사 대웅전 용가를 손꼽을 수 있다. 나선형으로 칭칭 감은 두 용의 몸통으로 표현한 횃대, 용 몸통에 매단 10개 풍경, 반야용선의 상징성을 구현한 줄에 매달린 동자 등 용가의 보편적 조형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쉬운 점은 용가 조형이 갖는 단순함에 뒤따르는 평범함에 있다. 그때 불국사 대웅전의 용가는 한국산사 법당 장엄에 나타나는 독특한 장엄구인 용가를 대표할 만하다. 불국사의 용가는 대단히 실험적이고 전위적이다. 오늘날 전위예술의 한 장르인 설치미술의 특성이 강하다. 다양한 소재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설치예술이 갖는 전위와 파격의 면모를 보여준다. 불국사 대웅전의 가구구조에서 대들보에 수직으로 걸쳐있는 충량은 일반적인 용뿐만이 아니라 사자와 코끼리로도 표현했다. 사자와 코끼리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상징으로서 본질적으로 상구보리(진리)와 하화중생(실천)의 교의를 가진다. 통도사 불이문 충량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호랑이, 코끼리 형상이 나타난다. 불국사 용가는 충량 가구를 활용하여 코끼리가 입에 물고 있는 기발한 방식으로 조영했다. 코끼리는 세 개의 상아를 가진 흰색 코끼리다. 코끼리 입에 쇠고리를 박아 두 줄의 쇠줄을 좌우로 늘어트려 용가와 연결했다. 코끼리가 용가를 입에 물고 있는 형상이 됐다. 조형에 힘이 실리고 구성이 예사롭지 않다. 조형 구도에서 파격적인 발상이 인상적이다. 용가의 몸통에는 나선형 채색은 남아 있지만 양 끝의 용머리는 없다. 나선형 채색은 용틀임하는 용의 의미를 갖는다. 몸통 밑면에는 모두 14곳의 풍경을 매단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는 10개만 매달려 있다. 풍경을 시설한 밀도가 조밀하다. 시각적인 조형에 청각의 감각이 스며들었다. 게다가 횃대에 새가 날아와 앉았다. 대구 동화사 대웅전 용가에도 새가 앉아 있다. 새는 극락조다. 극락조는 극락정토의 알레고리다. 파랑새라고 불러도 조형의 의미는 살아난다. 파랑새는 관음보살의 변화신이다. 극락조든 파랑새든 아미타여래의 극락정토의 상징성에는 변함이 없다. 흰색 코끼리, 극락조, 용, 풍경의 소재는 서로 상입상즉한다. 그 소재 조합으로 구성한 용가는 방편으론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이고, 본질에 있어 깨달음에 이르는 반야바라밀과 보현행의 실천을 일깨운다. 설치예술가처럼 내부 가구구조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의의 가르침을 시청각적 상징으로 풀어낸 안목이 돋보인다. 평범한 용가를 비범하게 재해석했다. 예술은 때론 종교적 교의를 시각화하는 탁월함을 보여주곤 한다. 불국사 대웅전 용가 목조각도 그 중의 하나다. 〈사진작가〉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불교인문학살롱

⑫ 게리 스나이더와 불교



▶**정약수 교수**는 1979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2010년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2006년 계간 〈수필춘추〉로 수필가로 등단했다. 새한영어영문학회장, 수필부산문학회장, 부산문인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대 평생교육원 효원수필아카데미 주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禪·생태주의, 詩語로 녹여내다

서구 문인들 중에서 동양의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 미국 시인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 1930~)만큼 그 관심이 실제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났던 이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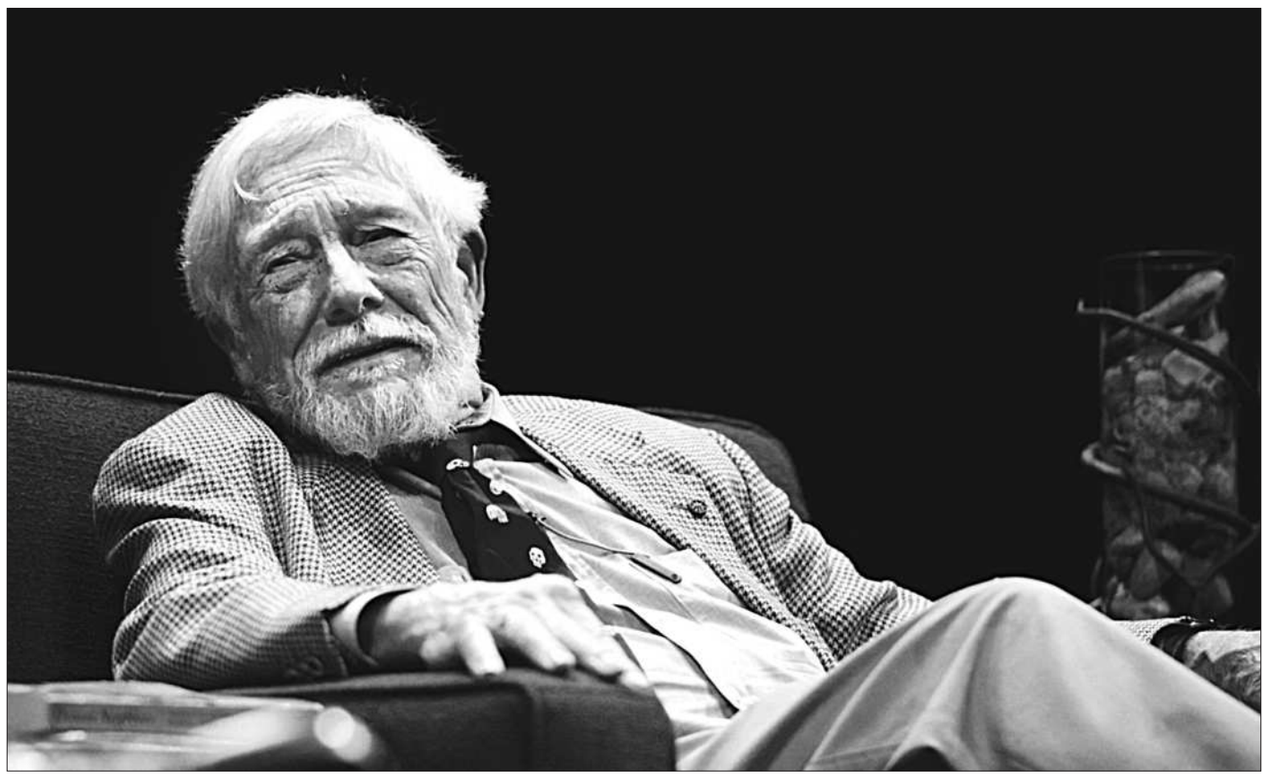
게리 스나이더는 1930년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에 면한 캘리포니아주 샌 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곧 보다 더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주와 오레곤주로 계속 옮겨 다님으로 그도 젊은 시절을 그런 지역으로 가족을 따라 함께 옮겨 다니게 되었다. 그는 그러한 미국 북서부 지역의 험난한 자연환경과 접하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적응 매료되어 갔다. 고등학생 시절 그는 그 지역 한 등산클럽에 가입함으로써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의 설봉들을 오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그의 등산 경력은 평생 동안 이어졌다.

또한 그가 1947년 오레곤주 포트랜드에 있는 리드 대학(Reed College)에서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중국의 한시(漢詩)와 일본의 하이쿠(俳句) 그리고 불교와 같은 동양문화에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동양문화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접촉과 관심은 그 후로도 꾸준히 이어졌는데, 그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대학 대학원에서 동아시아학 연구를 통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도 그러한 그의 관심의 발로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그 시절 그는 중국 당대(唐代)의 시인 한산(寒山)의 시를 번역하기도 했고, 1950년대 미국 비트 세대의 대표자들인 잭 케루악(Jack Kerouac)과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 등을 만나 그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1956년 그는 결국 화물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의 선불교 사원 쇼코쿠사(相國寺)에서 생활하며 미우라 이슈의 지도 아래 참선수련을 수행한다. 하지만 당시 아직 20대 중반의 팔팔한 젊은 청년이었던 그가 참선수련에만 빠져 있기에는 그의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를 주체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스나이더는 그 해 일본 등반가들과 어울려 일본의 북부 산맥들을 등반하기도 하고, 다음 해엔 요코하마에서 한 상선에 승선, 기관실 엔진 청소부로 일하면서 페르시아만을 거쳐 이태리, 시실리, 터키, 오키나와, 괌, 실론, 사모아, 하와이 등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1958년 4월 상 페드로에서 하선(下船), 결국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그는 1959년 다시 일본 교토로 되돌아가 다이토쿠사(大德寺)의 승원에서 오다 세소의 지도 아래 참선수련에 다시 몰입한다. 그러면서 그 해에 그의 처녀 시집 〈쇄석(Riprap)〉을 교토에서 출간하고, 이어서 다음해에도 시집 〈신화와 텍스트(Myths and Texts)〉를 출간한다. 1961~1962년 사이 그의 자연과 불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돼 인도로 가는 보트 여행에 나서서 스리랑카와 인도, 네팔, 티베트 등지까지 여행하면서 달라이라마를 예방하기도 한다.



미국 시인 게리 스나이더의 모습.

그 후에도 그는 주로 미국 서해안 지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한때 잠시 모교인 버클리 대학에서 영시를 강의하며 시작(詩作)을 계속하기도 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선 수행과 등산여행을 병행했다.

1964년에는 시에라 산맥 북부 설빙지역을 배낭여행하고, 1967년에는 다시 다이토쿠사에서 참선수련에 몰입한다. 그는 일본 시인 나나오 사카키의 안내로 규슈 서해안의 작은 섬 수와노세에서 자연친화적 공동체 생활에 합류하고, 1969년에는 미국 전역의 환경 운동가들을 방문하며 생태운동에 헌신하기도 한다. 이때 샌프란시스코의 야생생태학회에서 〈곰 스모키 경전(Smokey the Bear Sutra)〉을 배포하여 현대문명의 반자연적·반생태적 양상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 경전은 오래 전부터 곰의 모습으로 현현해오던 부처의 말씀을 통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

1970년 스나이더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발치에 있는 상 후앙 리지(San Juan Ridge)에 직접 집을 지어 정착했고, 그 해 시집 〈파도를 바라보며(Looking at the Waves)〉를 출간한다. 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추진한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모색과 실천, 1972년에 행한 일본 홋카이도의 야생생태 탐사작업, 1974년 시집 〈거북섬(Turtle Island)〉 발간, 1975년 시집 〈거북섬〉으로 퓰리처상 수상, 1980년대의 중국 방문, 1990년대의 라다크 마을 여행과 동굴벽화 연구 등 그의 활동은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끊임없이 탐사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능한 방식을 모색하는 일에 연관되고 있다.

문학, 실천 통해 불교 내보인 美시인
한시, 하이쿠 접하면서 불교에 매료
20대 日교토 사찰서 참선 수행하기도
'쇄석', 스나이더 시론 방증하는 화두
선불교 직관적 표현방식, 시에 투영해

미국 문인 가운데서도 스나이더의 이러한 독특한 인생행로는 시인으로서의 그의 시의 방향과 특징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그의 시의 방향과 특징은 그가 삼림 감시원이나 산악 가이드 등을 통해서 얻은 실제적인 경험과 동양사상, 특히 선불교적 명상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일본에서의 오랜 체류 기간을 통해서 얻은 선불교에 대한 실천적, 이론적 공부를 통해서 자연과 문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현대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더욱 진지하게 정립할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생태주의는 선불교 사상이 토대가 되었고,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또한 그의 작품이 이루는 시형식은 중국의 한시와 일본의 하이쿠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상적으로도 동양의 선불교 가르침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시에 나타난 이러한 이국적인 요소들은 그의 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미국 문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스나이더는 그의 생태주의와 선불교 사상을 결합해서 다양한 시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진정한 전이의 시로서 동양과 서양의 가장 유익한 예술과 철학을 흡수하고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이러한 방식은 후세의 시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이미지 중에서 그의 시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쇄석'(碎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쇄석'은 산에서 말이 다니기에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미끄러운 바위 위에 놓는 자갈을 가르킨다. 그의 처녀 시집의 제목이 〈쇄석(Riprap)〉이며, 그 시집에 담긴 시들은 미국 북서부 지역의 거친 삼림지대를 소재로 하면서, 그 표현방식은 선불교의 직관적인 표현과 깨달음을 위한 수련방식을 사용한다.

그는 시를 정의하면서 쇄석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는 형이상학의 미끄러운 바위 위에 놓이는 쇄석"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그는 바위를 부수어서 쇄석을 만들어 미끄러운 산길을 가는 말을 도와주듯이 시를 통해서 생태주의와 선불교 사상이란 추상적인 관념을 시의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의 독자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Lay down these words
Before your mind like rocks.
Placed solid, by hands
In choice of place, set
Before the body of the mind
in space and time:
Solidity of bark, leaf, or wall
riprap of things: (No Nature 43)

너의 마음 앞에 놓여있는
이 말들을 돌처럼 깔아라.
단단하게, 손으로
잘 고른 장소에,
공간과 시간 속
마음의 몸 앞에 놓아라.
단단한 나무껍질, 잎, 혹은 벽
사물의 쇄석: (No Nature 43)

이 시의 시작되는 두 행은 아마도 시인 자신이 시를 쓰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음은 결코 말로 쉽게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하는데, 이는 진정한 마음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므로 따로 문자를 세워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입장은 선불교적 깨달음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시인의 존재의미는 언어를 통한 사상과 감정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나이더는 마음 앞의 말들을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쇄석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의무로서 시를 쓴다. 마음의 몸 앞에 그것을 놓으라는 계속되는 요구는 시가 마음을 표현하는 몸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시는 나무껍질처럼, 나뭇잎처럼, 벽처럼 단단하고 구체적이어서 사물들의 쇄석의 역할을 한다.

스나이더는 생태주의 활동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에 의한 자연 파괴의 위험을 인식하면서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취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로 표현하게 되었다. 또한 그의 선불교 수련과 활동은 추상적인 사상이나 논리적 사고방식을 불신함으로써 이를 더욱 압축적이고 비논리적인 또는 논리를 초월한 시학이론을 펼쳤던 것이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표현방식은 선불교에서 공안(公案), 고칙(古則), 화두(話頭)라고 하는 것으로서, 참선 수행자가 궁구하는 문제를 뜻한다. 선불교인들은 공안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깨달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리하여 스나이더는 생태주의와 선불교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의 깨달음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물인 그의 시가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혼탁해진 현대사회에 한 줄기 섬광의 빛이 될 수 있는 소이(所以)인 것이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미혹 멈춰야 수행이 시작된다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㉓ 생멸심과 불과

〈원문〉 "아난아, 만약 인지(因地)에서 생멸심(生滅心)으로 수행할 인(因)을 삼고 불승(佛乘)의 불생불멸(不生不滅)을 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이렇기 때문에 네가 마땅히 기세간(器世間)을 비춰 밝혀보라. 만들어진 법은 모두 변하여 없어지는 것들이니라. 어느 것이 변하지 않느냐? 그러나 허공이 문드러져 부서진다는 것은 듣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허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부서져 없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니라. 너의 몸 가운데 단단한 것은 지대(地大)요, 축축하게 젖는 것은 수대(水大)요, 따뜻한 감촉은 화대(火大)요, 움직여 흔들리는 것은 풍대(風大)이니, 이 사대가 얽힘으로 말미암아 너의 맑고, 고요하고 원만한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妙覺明心)이 분리되어 보고, 듣고, 감각으로 느끼고, 살피는 것이 되었느니라.

아난아, 네가 이제 보고(見), 듣고(聞), 느끼고(覺), 아는(知) 것으로 하여금 여래의 상(常), 락(樂), 아(我), 정(淨)에 계합(契合)하려면 응당히 먼저 생사의 근본을 선택해 가려내고 생멸하지 않는 원만하고 맑고 고요한 성품(圓湛性)을 의지해야 이루어지나니 맑고 고요함으로써 허망하게 생멸하는 것을 돌이켜, 조복시켜 원래의 각(元覺)으로 돌이키고 원래의 명각(明覺)인 생멸이 없는 성품을 얻어, 인지(因地)의 마음을 삼은 연후에 과지(果地)의 수증(修證)을 원만히 해야 이루어 지니라."

〈강해〉 처음 수행하려고 발심했을 때의 마음을 인지발심(因地發心)이라 한다. 인지란 과지의 반대말로 수행의 결과를 얻기 이전의 과정이다. 〈능엄경〉에서는 이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각(覺)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삼마지(三摩地)를 닦는 수행이 생멸심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마치 파도치는 바다가 거울처럼 비춰줄 수가 없는 것처럼 생멸심으로는 불과(佛果)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승(佛乘)은 불과를 성취한 수행이 완성된 경지다. 기세간(器世間)을 살펴보라고 하면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곧 유위법(有爲法)은 결국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지만 허공은 문드러져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여 생멸을 떠나야 열반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대(四大)가 얽힌 몸이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妙覺明心)을 분리해 식심(識心)으로 만들어 견문각지(見聞覺知)를 일삼게 되었는 바 이것이 모두 생멸심이라 생사의 근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없어지는 '념기념멸(念起念滅)'이 생사(生死)라는 말은 〈몽산법어(蒙山法語)〉 등 선어록(禪語錄)에도 나오는 말이다. 이 대목의 요지는 견문각지(見聞覺知)하는 생멸심을 조복 전환하여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열반사덕(涅槃四德)에 계합되게 하라는 것이다. 또 생멸심은 미혹한 마음이다.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은 다만 무명만 도와줄 뿐이다.(迷心修道 但助無明)"라고 했듯이 생멸하는 미혹한 마음이 멈춰졌을 때 수행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중생의 경계는 모두가 인연에 의한 생멸법이다. 이른바 유위법(有爲法)이라 하는 것이 인연 생멸법이므로 중생의 세계는 무상(無常)하고, 고통스럽고(苦), '나'라는 것이 없으며(無我), 오염(染)되는 세계다. 연기 자체가 염법(染法)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부처의 세계를 지향하기 위하여 연기의 전환이 필요하다. 염법(染法)에서 정법(淨法)으로 전환되어 염연기가 정연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얻어지는 것이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의 열반사덕(涅槃四德)이다. 무상이 상으로 바뀌지고, 고가 락으로, 무아가 아로, 염이 정으로 바뀌지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덕은 생멸이 쉰 무생멸에서 얻어지므로 인지발심에서 생멸이 쉬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열반경〉 사구게에서도 밝히기를 "제행이 무상하여 생겼다가 없어지는 법이라 생멸이 소멸되면 적멸이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였다.

〈능엄경〉의 경명 능엄이 수능엄(首楞嚴)을 줄인 말로 범어 수랑가마(Suramgama)에서 음사된 말인 삼매 이름이다. 따라서 생멸심이 멈춰야 수능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㉓ 차별 없는 법신불

인과가 바로 평등

모든 갈등의 시작이며 돌고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되짚어보는 물음이 있다. '평등한가?' 삶 가운데서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삶에서 평등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것에도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평등은 무엇인가? 잠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찾는다면 시점과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를 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등하다'는 단어는 그러한 기간 없이 바로 지금만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의미는 사라지고 특정한 부분과 기간을 한정하고 취하게 되므로 누군가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참아야 하는 평등이 되어버린다. 만약 그가 지금 일어난 일에 평등하다는 말을 바르게 알고 참는다면 모두에게 너무나 다행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가 지금 일어난 일에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참지 못하게 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남게 되고 반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평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의 살림들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인과라고 말씀하셨다. 인과가 바로 평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물질의 다름이 생겨나고 조건의 지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인과를 평등으로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가 인과를 바탕으로 나타나지만, 꼭 지금의 기준에 맞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여기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잘 산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잘 살고 있다면 받아들임이 불편해진다.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는 평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적인 바탕에서 본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가 평등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비추어보아도 이전에 서로 뒤바뀌어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문자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성질은 차별 없이 평등하고, 온갖 생물은 형형색색이어서 비록 색신에 차별이 있지만 법신불이 아님이 없으니, 중생의 교화를 위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힘으로 잘라버리려고만 한다. 그러나 힘을 사용하는 만큼 그것은 다시 돌아와 더 단단히 붙게 된다. 물질의 이치는 작용이 있으면 그 반대의 작용도 똑같이 존재하게 된다. 힘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빼는 방법은 없다. 물질 자체가 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사용하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멈춤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멈춤은 신체적인 작용이 아니다. 물론 일차적인 것은 신체가 맞지만, 신체만을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느낌과 생각을 멈추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잔가지들이다.

잔가지를 다 잘라도 나무가 죽지 않듯이 우리가 멈추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의심해보지 못한 '나'라는 인식이다. 섣불리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나에 대해 힘을 주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오온 속에 아주 끈적하게 농축된 '나'이니 난처한 것이 당연하다. 언제나 '나'라고 하였으니 물질, 느낌, 생각 등에 언급할 필요도 없이 '나'로 완전히 물들었다. 이래서는 무엇을 해본들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바깥은 분별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평등하고 평형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의 단편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평등하게 하려는 마음에 힘을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쉬운 일이다. 힘을 사용하면 쉽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으니 어렵다는 말도 쉽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힘이 센 조건이든 약한 조건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의도를 갖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그대로가 차별 없는 법신불이다. 그 다양한 법신불을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알지 못할 뿐이다. 몸의 모양은 아무 장애가 없으니 몸의 조건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평등, 그 자체라는 것을 알면, 모양과 상관없는 스스로임을 알게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심장박동 활용해 장부 상태 주시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㉓ 엄지억제요수부관법 채약법 1

요수 1, 2번의 다리 경로이다. 가슴신경을 세수하면서 갈비뼈 안쪽의 장부 감각들을 느껴본다. 심장박동을 활용해서 의도하는 장부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장부 상태를 주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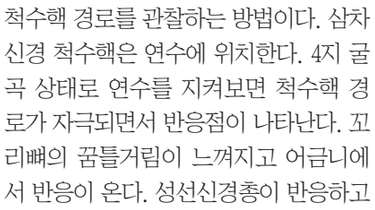
엄지 억제 요수부 관법

요수 5번까지 호흡을 들이쉰다. 천천히 내쉬면서 심장박동을 느껴본다. 날숨과 함께 심장박동을 발쪽으로 끌고 간다. 고관절, 엉치뼈, 대퇴골의 상태를 살펴보고 무릎과 정강이뼈의 상태도 살펴본다.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상태까지 관찰한다. 이상 자극이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해소될 때까지 관찰한다. 다른 부위의 공명점도 함께 관찰한다. 3지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른 다음 첫째마디와 둘째 마디를 살포시 구부린다. 3지에는 약간의 힘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나선 호흡을 꼬리뼈 끝까지 들이쉰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체감각계 전체를 자극한다. 머리부, 경수부, 흉수부, 요수부, 천골부 순서로 내려가면서 등 쪽에서 배 쪽으로 호흡의 감각을 이끌어간다. 세 번 반복한 다음 의지를 백회에 둔다. 숨이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호흡의 감각을 따라서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 눈으로 본다는 의도를 갖고 머릿속을 들여다본다. 호흡의 경로를 따라 각 부위를 들여다본다. 꼬리뼈 끝까지 따라 내려갔다가 역으로 되돌아와서 백회에 머문다. 숙달되면 시각적으로 피질 경로를 보게 된다. 내 몸속에 피질 경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상대의 피질 경로도 눈으로 볼 수 있다. 3지 억제 살갗 관법을 통해 수행자는 상대의 몸속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능을 갖게 된다. 엄지손가락으로 4지를 지긋하게 누른 다음 나선 호흡을 꼬리뼈까지 들이쉰다.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연수에 의지를 둔다. 숨을 내쉴 때는 전체 체감각 경로를 자극하도록 한다. 4지 억제 살갗 관법은 척수핵 경로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삼차신경 척수핵은 연수에 위치한다. 4지 굴곡 상태로 연수를 지켜보면 척수핵 경로가 자극되면서 반응점이 나타난다. 꼬리뼈의 꿈틀거림이 느껴지고 어금니에서 반응이 온다. 성선신경총이 반응하고 요의가 느껴진다. 심장의 박동이 연수에서 느껴지면 박동을 이끌어서 반응점에 머무른다. 때로는 점과 점으로 반응점을 연결하고 때로는 선으로 연결하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세수를 행한다. 숙련되면 뇌와 척수의 율동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엄지손가락으로 5지를 살포시 억제한 후 나선 호흡을 꼬리뼈까지 끌어내린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면서 전체 체감각계를 씻어준다. 세 번 반복한 다음 연수 하부에 의지를 둔다. 심장박동이 느껴지면 부신경 경로로 박동을 이끌어 간다. 숨을 내쉬면서 양쪽 어깨로 심장박동을 이끌어간다. 어깨에 머물면서 공명점을 주시한다. 등 쪽 승모근의 반응이 느껴지고 목빗근의 반응이 느껴진다. 귓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심장박동에 변화가 일어난다. 승모근이 경직될 때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등줄기를 타고 열기가 올라온다. 어느 한순간 심장박동이 거짓말같이 사라진다. 귓속에 웅웅거리던 소리도 사라지고 텅 비워진 고요가 찾아온다. 그때의 고요를 머릿속 중심에서 바라본다. 양쪽 어깨와 머릿속 중심을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심장박동이 다시 커지면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말초신경의 순화를 통해 육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의 유전적 형질을 복구시킨다. 그러면서 세포통신을 활성화시키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의 추업과 세업이 제도되고 식의 추업이 제도된다.

〈영양 연화사 주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명산대찰의 수천만원

의 시설들! 본사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죄송하지만 한결같이 장난감 소리 차이!

▣ 그 이유 : 본 품은 디지털 염불전문시스템으로 특수제작 (기존품들과 부속이 전혀 다름)
▣ 특징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장 기존시설가에 1/3

본 제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오직! 소리만 비교만 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비용 추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40호 | 17 | 전면광고

남의 허물을 보면 입을 다물라.
자기에게 나쁜 점이 있으면 응당
들추어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원주림》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10억
- 위치 : 강원 동해 암자 • 부지 : 110평
- 건평 : 30평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2억 2천 5백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급) 안내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층에 2층, 40평
- 인근 상권 주거 및 재래시장 밀집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 1,300만원

010-5635-6199

사 찰 안 내

- 전세가능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전세 : 1억 5천만원, 매매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홍성군 – 시내 5분거리
- 대지 : 160평
- 텃밭 : 100평
- 시설비 : 2000만원
- 울창한 소나무 숲 위치함
- 문중암자 : 연세 12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가능

010-7942-9015

사 찰 안 내

- 대구 동구 신암동
- 대지 : 80평
- 1층 요사 , 28평, 방6개
- 2층 법당 26평
- 지하공양간 43평 , 방4개
- 조용한곳
- 가액 : 15억

010-3501-5230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김해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구산동 시영 아파트 상가 3층, 301호
- 3층 크기 약 60평
- 매매금 : 2억 8천만원 (시설 포함, 융자 1억 포함)

010-3485-49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읍내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27평
- 대지 200백평, 매매 및 전월세
- 매매 : 3억 1천만원 / 전월세 : 2,000만원에 월 40만원

010-9485-93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호선, 5호선 전철 6분 거리
- 법당 3층 건물에 2층, 40평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70만원 (시설비 절충)
- 스님 사정상 임대함

010-3167-17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 중 2층
- 법당 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대지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7m 정도) / 부처님 사리(협의)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앞 개울이 있습니다. 앞산 능선이 와불로 되어있습니다.
- 매매가 : 2억 3천만원(절충 가능)

010-2807-0509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약 230평 (요사채, 법당, 공양간 등)
- 가액 : 3억(절충가능)

010-9389-7457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찰(급)안내

- 부천 대덕사 • 위치 : 부천시 심곡동 325-3
- 2층 법당: 상단3분, 신중전, 관음전, 지장전, 칠성전, 용왕전, 산신전, 약사전 모심
- 1층 : 큰 거실, 큰 부엌, 방2개, 다락2개, 화장실3개 (1층, 1층 외부, 2층에 위치함)
- 평수: 대지면적 130.2㎡
- 가액 : 6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6296-8797

사 찰 안 내

강서구 방화동 상가 3층 32평

- 법당 넓은평 : 방2, 주방1, 화장실 복도 2칸 단독 사용, 창고방1
- 2000/65만원
- 엘리베이터, 주차 無(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 주변에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있음 부처님 외 인등, 북 등 전체 보시
- 시설비만 2,000만원(비품 모두 새것)
  몸만 오시면 됩니다.바로 기도 수행 할 수 있음

010-6613-22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 면천, 서해. 대전고속 IC 3분거리 조용한 산속임
- 법당 20평, 정무소 5평, 요사채 25평(양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스님이 연로한 관계로 양도함.
굿당 운영도 가능

010-5404-92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4727-6065

포교원 안내(40년)

- 위치 : 수영 R-Y 부근, 2층 40평
- 법당 : 아미타, 관세음, 지장, 신중, 영단, 소불 200불
- 전세 : 보신 후 결정

주지 소임 관계로 급, 즉시 법회 가능

010-9695-1060
051-727-2421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근교 IC에서 3분거리
- 대지 : 23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 석불다수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오억(5억) 절충가능

010-3540-8431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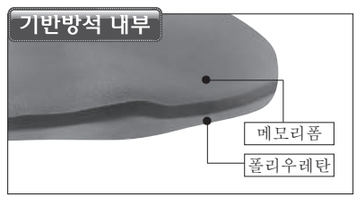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40호 | 18 | 전면광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영남범음범패

통범(구암스님)소리를
채보하여 악보로 수업

- 의식 및 사물장단
- 태평소 · 대금 · 작법무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2길 32-81, 영원사

010-3156-2211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성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전자리를 구합니다

〈지역관계 없음〉

010-8955-948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⑩ 아까시꽃차

태음인과 기관지 · 천식에 좋아

이번 호는 푸른빛의 잎사귀 사이로 펼쳐지는 뽀얀 꽃봉우리에서 펴져나오는 달달한 향기에 다시 한 번 눈길을 보내게 되는 아까시꽃차이다. 아까시나무는 5월이면 순백의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향긋한 꽃향기를 선사하며, 풍부한 양의 꿀을 제공하여,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매력적인 나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나무의 정확한 이름은 '아까시나무'이다. 까시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름이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에 수입하였다.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뿌리혹박테리아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켜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에 황폐한 땅을 복구하기 위해 식재하였다.

꽃말은 '쾌락의 바람', '깨끗한 마음', '우정', '품위'이며, 다른 이름은 아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자괴(刺槐)이고, 생약명은 자괴화(刺槐花), 자괴근피(刺槐根皮)이다.

아까시나무는 대표적인 밀원식물(벌이 꿀을 빨아 오는 원천이 되는 식물)로, 꽃이 피는 시기는 5~6월이다. 이용부위는 뿌리껍질과 잎, 꽃으로, 꽃은 식용 또는 차로 사용한다.

성분과 약성

아까시꽃에는 아미노산 카날린(canaline), 리신(ricin), 아스파라긴산(asparagin), 글루탐산(glutamic), 히스티딘(histidine), 알기닌(alginine), 페닐아라닌(phenyalanine), 발린(valine), 티로신(tyrosine), 탄닌(tannin), 플라보노이드(flavonoid) 등이 있다.

아까시꽃은 성질이 평하고, 맛은 맵다. 천연항생제로 천식, 기관지염, 신장염, 방광염 등 염증에 효과가 좋고, 이뇨작용, 해독작용을 한다. 고혈압에도 효능이 있으며, 치질, 대장하혈, 객혈, 토혈 등을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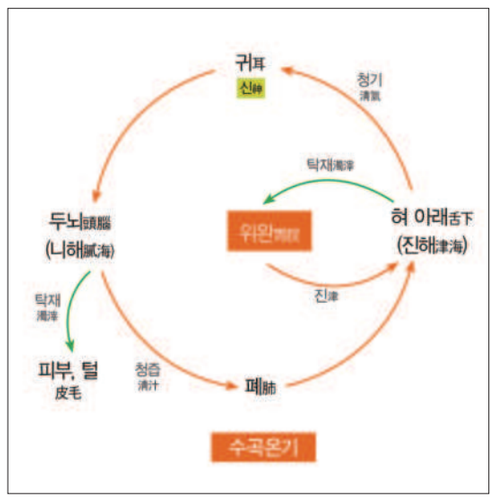
마음 · 기작용

아까시꽃은 폐(肺)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이다. 태음인은 간대폐소(肝大肺小)의 장국으로 수곡온기가 작은 사람이다. 아까시꽃은 기본적으로 폐당(肺黨)의 수곡온기를 도와서 잘 흐르게 한다.

태음인의 신체적 특징은 대체적으로 체구가 큰 편이고(체구가 작은 사람도 많음), 특히 허리가 발달되어 굵다. 땀이 많고, 폐기능이 약해 기관지염 · 호흡기 질환이 있다. 또 피부와 터럭이 약해 피부병이나 대머리가 많다. 후각이 발달하여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건강한 태음인은 땀을 잘 흘리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체중 증가가 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아까시꽃차는 천연항생제로 천식,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위완(胃脘)과 관계된다. 수곡온기는 위완(胃脘)에서 진(津)이 생성되어 혀 아래의 진해(津海)로 들어가고, 진해의 맑은 기운은 귀로 나아가서 신(神)이 되고, 진해의 탁재(濁滓)는 위완을 보익한다. 진해의 탁재가 위완을 보익하기 때문에 아까시꽃은 진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또 아까시꽃은 치질, 대장하혈, 객혈, 토혈 등을 다스리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간당(肝黨)에 흐르는 기운으로, 아까시꽃은 허리의 혈해를 충만하게 하여 간(肝)의 원기를 보익하고 혈(血)을 잘 응결되게 한다.

제다 및 음용

아까시꽃은 개화시기인 5~6월에 채취한다. 꽃잎을 하나씩 떼거나 또는 꽃송이를 취향에 맞게 자른다. 중온에서 꽃이 타지 않도록 덖음한다. 고온에서 가향을 해서 완성한다.

아까시꽃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로 우린다. 아까시꽃차에 당귀꽃차를 블렌딩한다. 당귀꽃차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청혈, 보혈, 생혈작용으로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아까시꽃차 블렌딩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속을 편하게 하고, 당귀의 효능으로 기력을 돕는다. 아까시꽃차 1.5g, 당귀꽃차 0.5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로 우린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우림하기 전에는 새콤달달한 향이 났다. 우림한 차를 따르는데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황금빛 찻물이 아름답게 다가왔다. 1차 시음에서는 풀잎의 싱그러운 향이 나면서 부드럽게 넘어갔다. 2차 시음에서는 달콤한 꿀향이 나면서 꿀의 단맛과 아까시 향의 맛이 감돌았다.

다른 태음인 시음자는 우림하기 전에는 시원한 풀 말린 향과 동시에 꿀향이 나고, 생것의 달달한 아까시꽃의 향은 찾을 수 없었다. 1차 시음에서는 아까시 풀향이 나면서 단맛이 났다. 2차 시음에서는 부드러운 향과 맛이다.

소양인이 마셨을 때, 우림하기 전의 꽃에서는 상큼한 냄새와 달달한 향기가 났다. 1차 시음에서는 향수 맛이 나고, 혀에 착 감기는 맛이다. 2차 시음 이후에 목이 약간 칼칼하다가 괜찮아진다. 트림이 올라오고, 눈이 시원하면서 관자놀이 부분이 약간 통증이 있었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우림하기 전의 건향은 건초(담배)의 냄새가 나고, 우림한 차에서는 꿀을 먹고 시간이 경과한 후의 단맛이 사라진 뒤에 느끼는 맛이 났다. 그렇게 당기는 맛은 아니었다.

다른 소음인 시음자의 경우, 건향은 담배 잎 냄새가 나며 단내도 났다. 우림한 차에서는 아까시 향이 살짝 났다. 부드럽게 목 넘김이 좋으나 맛이 당기지는 않았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건강 365
① 무릎 관절

건강한 관절, 삶의 질 향상 '큰 도움'

사람들의 가벼워진 옷차림과 수시로 맺히는 땀방울에서 여름이 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산과 바다로 휴가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한국 명산과 명승에는 항상 명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많은 명찰들을 제대로 순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이 건강한 '관절'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절 통증은 기온이 낮은 겨울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기온이 높은 여름에도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무릎을 사용하는 경험이 다를 수 있어 한 가지의 이유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활동의 증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름철에 바깥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걷기, 하이킹, 달리기 또는 스포츠 경기와 같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무릎 관절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통증과 불편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 주변 근육을 포함하여 근육을 워밍업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밍업 운동은 근육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유연성을 향상시켜 무릎 부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평상시에 무릎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칭과 무릎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무릎 강화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레그 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세와 기술을 유지하며 천천히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 이후에는 무릎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운동이나 연속적인 활동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경우 얼음 팩을 사용하여 무릎을 냉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습도 및 온도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습도와 더운 날씨는 무릎 관절액 점도의 변화를 일으켜 무릎 관절의 윤활 및 쿠션 역할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 내 마찰 및 염증,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은데, 이때는 기압이 떨어지는 저기압 상태일 때가 많고 상대적으로 무릎 내 압력이 높아져 무릎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탈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은 관절 내 관절액의 윤활 및 충격 흡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운 날씨로 땀 배출은 늘어나고 적절한 수분 보충이 되지 않는 탈수는 관절액의 윤활 기능을 떨어뜨려 관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하루 종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더위로 인한 '부종의 증가'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어 무릎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로의 혈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류가 증가하면 부종과 염증이 생겨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의 변화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종종 샌들이나 슬리퍼와 같은 가벼운 신발을 많이 신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앞이 막힌 신발이나 운동화에 비해 지지력과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부적절한 신발은 보행 역학을 변화시키고 외상의 가능성을 높여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신체활동에 따른 부상을 예방하고 무릎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릎 관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있어서는 건강한 체중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무릎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무릎 통증, 골관절염 및 기타 무릎 관련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름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무릎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에도 현재 관절상태에 따라 활동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와 같이 관절에 충격이 큰 스포츠나 운동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활동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무릎 문제의 병력이 있거나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수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강도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에도 적절한 기술과 보호 장비 사용이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형태와 보호 장비나 보호 장비의 부족은 무릎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추가적인 지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릎 보호대나 보호 슬리브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무릎 문제를 무시하면 더 많은 손상과 장기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올 여름은 무더위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관리를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영경 거인병원 원장

일일시호일

사고로 24시간 대수술에
뇌경색 겹쳐 절망

감각 · 언어 장애에도 병원비 감당 못해 재활치료조차 못 받아
목숨 걸고 탈북했으나 15개월 아들과 가족 생계마저 막막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⑱ 감정 알아차림의 중요성



▶한줄 요약
최근 많은 리더가 순간적인 감정조절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리더의 실수는 기업을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망하게도 한다.

'감정조절' 능숙한 리더, 조직을 살린다



독자 여러분은 최근 환갑잔치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환갑나이는 61세. 1990년대만 하더라도 동네에서는 환갑잔치를 많이 했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전체 평균수명은 1970년에는 62.3세, 1990년에는 71.7세였다.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집계되었다. 50년 전인 1970년대 비교해 보면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은 무려 21.3세나 증가했다. 인간의 수명은 기술발전에 따라 이처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기업의 수명은 어떨까?

미국 S&P 500을 기준으로 1965년에는 32.3년의 수명을 기록했던 기업들이 2020년에는 21년 이 조금 넘었고 2030년에는 평균 17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도 10년 후 얼마나 살아남일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수명은 단축되고 있다. 2022년 말에 인공지능 솔루션 챗GPT가 등장한 이후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기업이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의 탄생은 자연스럽게 기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글로벌 유명 컨설팅기업인 콘페리 헤이그룹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고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의 성과 영향요인의 약 70%는 고객, 시장, 기술, 정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머지 30%는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의 몰입을 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리더십 요인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변수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감성지능 또는 정서지능(EQ;Emotinal Intelligence)이 고성과를 창출하는 리더들이 공통으로 발현하고 있는 역량이라고 한다.

정서 지능은 자기인식(self awareness), 자기관리(self 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관계관리(relational management)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네 가지 모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다. 이 네 가지 영역은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리더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올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혜롭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한쪽 견해에만 치우친 편견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성공하는 리더와 실패하는 리더의 차이를 연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실패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감정관리 실패, 실수에 대한 방어적 처리 등이 대표적인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도 모든 실패 원인의 중심축에는 자기인식 역량의 부족이 제시되고 있다. 자기인식 역량이 높은 리더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화나 분노의 감정을 함부로 폭발시키거나 드러내지 않고, 왜 그러한 감정이 생겨났으며, 어떻게 그 감정이 커지고 있고 또 어떻게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조처를 할 수 있을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반대로 감정에 대한 자기인식이 약한 리더의 경우 화, 분노,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자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보다는 주로 남 탓을 한다.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강력한 감정과 하나가 되어 휩쓸리게 되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많은 리더가 순간적인 감정조절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리더의 실수는 기업을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망하게도 한다.

인류 기대수명 점차 늘어나지만
기업 평균수명은 꾸준히 단축돼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챙김 해야

그러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인 정서 지능을 갖춘 리더십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사실 앞에서 언급한 정서 지능 중에서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자기인식'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했다. '마음챙김 명상'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딱히 과학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경영에 과학기반의 마음챙김 명상이 지속경영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마음챙김 명상은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조직 성과, 매출, 이익 창출에 이바지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이직을 줄이고 건강관리 비용도 낮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비재무적 측면에서는 조직 활성화, 창의성,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한다. 리더의 심리적 측면에서는 겸손, 정직, 회복탄력성, 만족감, 소통역량, 공감력, 정서 지능, 갈등관리, 관대함 등이 강화되고, 신체적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감소, 에너지 증가 불안 감소, 불면 감소, 번아웃 감소, 뇌기능 활성화 등이 나타났다고 제시한다. 마음챙김이 회사 경영성과와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 마음챙김 명상과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미 있는 논문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필자도 리더를 대상으로 마음챙김 효과성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큰 기대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일단 해보는 데 의미를 두었다. 그런데 시범적 성격의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음에도 의외로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 참가자들의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정신건강이 증진된 것이 눈으로 확인되었다. 8주간의 과정을 마친 뒤 불편감이나 억압감 저하와 같이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똑똑히 목격했다.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스트레스 수치는 25.5 에서 21.5로, 사회부적응과 불안 및 우울감 등 일반 정신 건강 수치는 24.5에서 22.5로 줄어들었다. 반면 마음 챙김에 대한 자각은 47.2에서 51.1로, 정서지능은 66.1에서 74.6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상황대처에 대한 유연성이 향상했으며 관계적 리더십 향상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보였다. 통계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챙김 명상의 놀라운 효과'였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로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로서 한 걸음 더 나갈 힘을 얻게 된 것이다. 특히 리더로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인 정서 지능 요인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이 고무적이었다.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특히 몸을 통하면 감정을 쉽게 바라볼 수 있다. 필자가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최대 무료 명상 앱인 '하루명상'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단한 리더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을 소개해보겠다.

먼저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몇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15초 정도 편안하게 호흡하며 머물러본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최근 1주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라. 오래된 일이라도 상관은 없다. 너무 강렬해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은 떠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실습하기 적당한 수준의 사례를 선택한다. 가능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떠오를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지켜본다. 이때 30초 정도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도 자세히 살펴보라. 감정은 대부분 몸으로 나타난다. 감정은 매우 강력한 생리적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감정을 고해상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몸을 관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제로 우리가 화가 나면, 몸이 긴장하거나 떨리기도 하고, 열이나 땀이 나기도 하고, 또는 호흡이 거칠어지기도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가슴의 답답함, 두통 또는 참기 어려운 충동이 올라오는 것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화가 나면,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자책하는 데 의식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화가 나는 순간에도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의식할 힘을 준다. 이것이 바로 정서 지능의 핵심인 자기인식 역량이 된다.

계속해서 최근에 있었던 힘든 상황을 떠올리면서 몸의 감각에 의식을 집중해보라.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편안하게 몸의 변화를 바라보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집중하면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만약 특별한 느낌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 우리는 마음보다는 몸을 통해서 감정을 더 생생하게 경험한다. 훈련할수록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변화를 느린 화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몸의 느낌부터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본다. 그러면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고, 감정을 더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탁월한 리더로 성장할 힘이 생길 것이다.

"마음을 관찰(觀察)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에 더 미묘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空間)이 생긴다. 그때 바로 직관(直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 보게 되며, 더 현재에 집중(集中)할 수 있게 된다." 일상의 삶은 물론 비즈니스에도 명상적 통찰을 적용하여 변화와 혁신을 끌어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다. 현재 순간에 깨어서 밖이 아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내면에 온전히 내재하여있던 역량이 스스로 발현된다.

달라이 라마는 '리더스 웨이'라는 책에서 리더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불러오는 손해를 알고 나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이때 유용한 것이 '조기경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는 "내 마음이 부정적인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심하라. 생각과 감정의 고삐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해주는 내면의 목소리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강할 때는 중요한 결정이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은 내리지 말라는 것이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다. 하루에 10분씩 마음챙김 명상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 또는 아주 가끔만 일어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하는 리더는 정신의 힘을 극대화 시켜 중요한 경영 문제에 에너지와 잠재력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럴수록 기업의 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 리더십 역량이 기업의 수명을 결정한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40 호 현대불교
2023년 6월 21일(음 5월 4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내일 살 걱정 하지 말고 하루살이로 살아 보라

마음의 차원을 높이려면

질문 일체가 다 다음에서 나온다 하지만 우리 무지한 중생들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차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보십시오.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나무때기로 도구를 만들어 쓰는 시대가 있었고, 또는 돌을 깎아서 도구로 쓰는 시대가 있었고, 또는 구리로 만들어서 쓰는 시대가 있었고, 철로 만들어서 쓰는 시대가 있었고, 금속으로 만들어서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갖다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온 자체가 뭘 말하느냐. 여러분이 일체 만법, 그 무한의 진리를, 무한의 능력을, 창조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자꾸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발전이 돼서 지금 통신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또는 어떠한 회사의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창조를 해서 내놓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을 다 자유스럽게 살게 해 놨는데 왜 그렇게 자유스럽게 못 사느냐는 얘깁니다. 삼라만상이 다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마는 좀 마음을 넓게, 보고 듣는 대로 모든 것을 넓게 쓰세요. 우리는 색깔을 보고 저런 나무들이 어떠한 종류인가 하는 것도 밝혀내서 알고, 이렇게 잘 보고 삽니다. 그런데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이 마음의 심력입니다, 심력! 빛은 가다가도 물질이 있으면 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늦춰질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어서, 빛이 그렇게 빠르다 해도 그런 한계가 있지만, 심력이라는 것은 은산철벽도 그냥 뚫고 나갑니다. 어떠한 물질이고 아랑곳없어요. 어디고 아랑곳없습니다, 정말. 멀고 가깝고도 없고 어떠한 물질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냥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집을 쓰고 다니면서, 내 집을 내 시자로, 내 종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면서 내 종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야 어떻게 불자라고 하겠습니까? 모두 중심이 튼튼치 못하고 마음이 요변덕을 떨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수억겁 광년을 거쳐서 나를 이렇게 진화시켜서 끌고 온 주인을 생각한다면 진짜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끌고 갔든 못 끌고 갔든 자기 주인이 끌고 온 것입니다, 여직껏.

그런데 주인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거기에 턱 맡길 수가 없다면, 여러분 몸도 역시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큰 트럭을 운전수가 막 요변덕을 떨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끌고 가요, 충돌할 듯이.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 있는 기사더러 그랬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안에 운전수가 개떡 같으니까 저 차도 개떡같이 구르잖아?" 하고요. 그거예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 개떡 같다면 사람의 행동도 개떡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우리 심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광대무변하고, 이 세상을 그 심력에다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구나. 다 넣었다 꺼내도 줄지 않는구나.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우리의 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더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인내가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몸이 있는 채로 그 도리를 알아야 이름해서 열반계에도 가는 거지, 아니, 죽기만 하는 것이 열반이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내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다' 는 걸 알아야 열반이에요. 자세히 말하자면 '마음은 체가 없고 순식간에 나투면서 돌아간다' 는 그 점을 알면 열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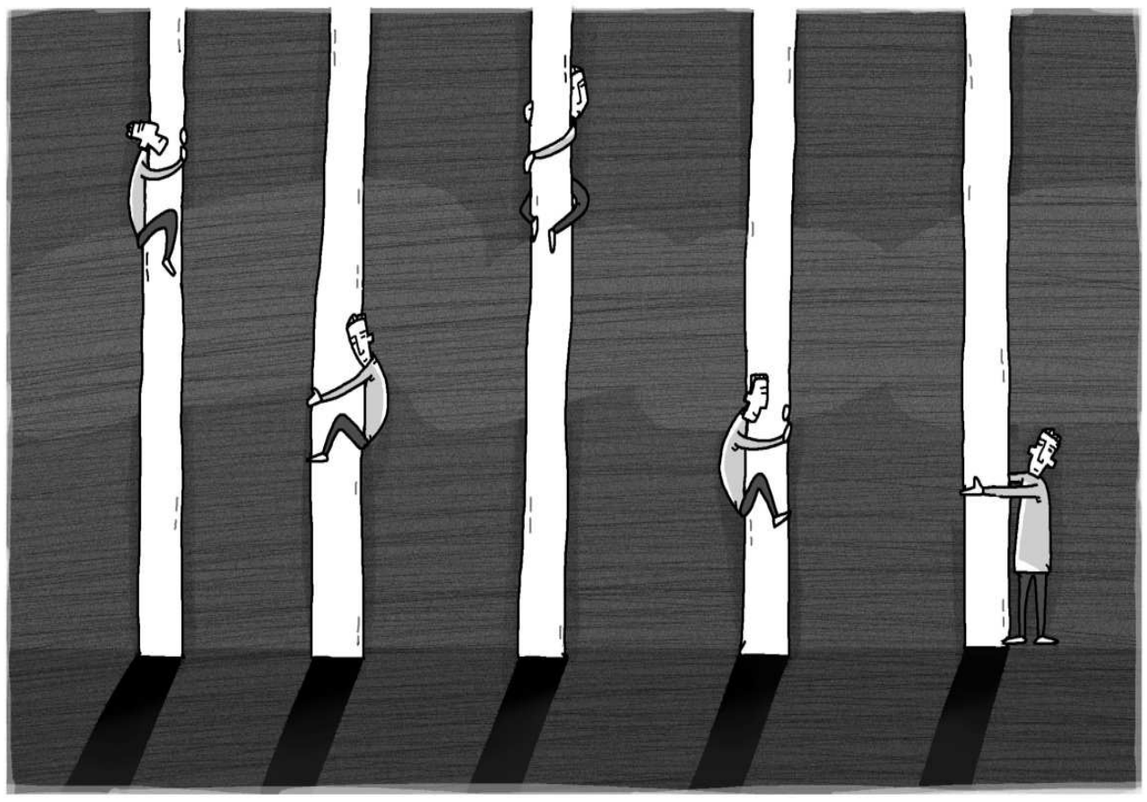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을 정확하게 믿고 맡기려면…

질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신에 의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개념도 제가 자꾸 바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공을 정확하게 믿고 맡겨 놓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아무리 주인공이다 할지라도 그 주인공을 형상으로 바깥으로 찾는다면 그것도 또한 도깨비장난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요, 일 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하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 도리만 안다면 우리가 자유인의 성취를 맛볼 것입니다. 어디에도 고통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러고도 능수능란하게, 괴롭지 않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일이 되는 것은 자기 육체 속의 의식들이 내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하나가 돼서 때로는 선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디가드도 될 수 있고 해결사도 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용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모두가 부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가 못 되는 것은 단 하나, 모두 바깥으로 '주여!' 하고 찾고 바깥으로 '하나님!' 하고 찾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 하고 바깥으로 믿고, 이렇게 자꾸 찾는 것을 바깥으로 찾으니까 내가 성숙이 못 돼요. 성숙될 수가 없죠. 첫째는 나부터 성숙돼야 되는 건데 내가 성숙된 게 아니고 말로 요량껏 이론으로만 밝아져요. 그렇다면 실천은 못 하죠. 어때요?

제법무아와 윤회

질문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법이 무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윤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제법이라 하면 일체를 말하고, 이 무아라고 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는 그 가운데에 나,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고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 것이지, 이러한 무아가 없다면 윤회가 어디 있으며, 윤회가 없다면 이러한 무아가 어딨습니까? 눈이 없는데 귀가 어딨고 귀가 없는데 눈이 어딨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육신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 육체가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깐 무효고, 또는 생각을 해내지 못해도 목석이니깐 무효예요. 다 갖추어서 생김생김이 잘생기고 잘 행할 수 있는 똑바른 사람이라야 그걸 제법의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렇단 얘깁니다. 그래서 세상 뜻이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경지이기 때문에 제법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없어서 무아가 아니라, 우리 몸뚱이 속에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내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간다고 할 수도 없습니

☞ 22면으로 계속



들이고 내는 데는 오직 내면세계 그 한 구멍밖에 없다

☞ 21면에서 계속

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모두가 작은 것 큰 것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법이 무아인데 어찌 윤회가 있겠습니까?" 이런다면 우린 움죽거리지도 말고 목석이 돼야죠. 물도 파도도 없고 흘러가는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넉넉히 흘러가고 움죽거리고 자동적으로 아주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무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냥 전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육도윤회에 끄달리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올바른 거죠. "그 윤회라는 것이 알고 본다면 모두가 공했으니까, 거기다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매이지 않는 게 상책이다.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생전에, 몸 떨어지기 전에 알아야지 몸 떨어지고 난 뒤에 해탈을 하려면 해탈치 못합니다. 부딪침도 없고 더함도 덜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윤회에 매이지 말고 모든 착을 떠나서 그대로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대로 모두 하고들 계십니다. 그대로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모두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 도리로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하나를 생각하면 꼭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 장난에 끄달리고 그러니까, 모두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입력이 돼서 바로 그게 악업 선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나가면서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 어항 속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안의 그 언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마음을 넓게 갖는다면 우주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느냔 얘깁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 하고 얽매여서 그냥 고인 물에서만 헤매고 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물리가 터져서, 점프를 할 수 있는 능한 마음이 생겨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묘법이다. 마음이 묘하다. 마음이 악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선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점프를 해서 이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우주 세계를 한 찰나에 돌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마음을 가둬 놓고 있느냐." 했습니다.

'주인공' 이라 하는 것은 한마음을 말하고, 전체, 안과 밖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한마음' 이라고 합니다. 그걸 즉,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기 이전 마음은 바로,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입니다. 다스려야 할 선장! 잘못되고 잘된 걸 뻔히 아는 선장 말입니다. 마음 내는 것을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니까 '요럭하면 안 되잖아. 이럭해야 되잖아.' 하고 다스리는 선장이 있단 얘깁니다. 그렇게 선장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내니까 육신은 덩달아 따라서 움죽거려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들이고 내는 데는 오직 내면세계 바로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빗장 없는 빗장을 쥐고 늘어져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생각이면 그냥 윤회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윤회라는 것에도 매이지 말자.' 하고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 마음은 체가 없으니 마음을 넓게 갖는다면
> 우주 바깥을,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왜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 하고 얽매여서
> 그냥 고인 물에서만 헤매고 도느냐 이겁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몸이 아파요

질문 제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먹고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식구들 먹여살리느라 몸을 돌보지 못해서 그런지 몸이 아프다 보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인공에 관하기는 하는데 호전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채찍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가서 벌어먹여 살리게 한 놈도 그놈이고, 가난하게 사는 놈도 그놈이고, 믿는 놈도 그놈이고 안 믿는 놈도 그놈이에요, 다! 모든 것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확고하게 믿고, 죽든 살든 거기에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리가 아픈 놈이 와서 빨리 고쳐 달라고 야단법석인데, 끌고 온 놈이 또 빨리 낫게 해 주시라고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낫게 해 주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빨리 낫게 해 줘?" 이랬는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가더니만 아, 다리가 나아서 겅중겅중 뛰어다니니까 이제 등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봐라. 등한시하잖아?"라고 하니까 다시금 다잡아서 그 공부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지수지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 보세요. 이거는 말로만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맛을, 어휴! 그 맛을 알면 너무도 좋을 겁니다. 그 맛을 알면 하늘을 쳐다보고 백 번을 울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고 땅을 치고 백 번을 웃어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열심히 해 보세요.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데, 뭘 그렇게 꽉 잡고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짊어지고 애를 써요, 그렇게? 아, 그냥 걸어올 뿐이지, 그 발자취를 마음으로 왜 또 뭉쳐 들고 다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살림살이 살아나가는 거는 우리가 걸음 걸어오듯이 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발자취를 놔 버린 채 걸어 다니는 거와 같은 거죠. 내일 살 걱정 하지 말아요. 하루살이로 살라고요. 그냥 하루살이로 살란다고 또 다 갖다 팔아먹고 끓여 먹고 이러지 말고요, 하하하. 다 맡기고, 내가 가진 게 뭐 있나요? 내 몸뚱이도 가진 게 없어요.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냥 그걸 부여잡고 쩔쩔맵니까? 좀 그렇게 놔 보세요.

아버지로서의 마음

질문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저 자신보다 자식의 즐거움이 더 기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앞으로 자식에게 귀감이 되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자식을 대하는 마음에 대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 세상의 어떤 회사든 중역으로 돼 있는 사람은 중역이기 때문에 직원을 다스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댁도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전하고 아버지가 돼 가지고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더러운 것도 볼 수 있고, 망나니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너그러움이 있는 거지, 만약에 장가들기 전이라면 딴 자식들이 그럭하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그러니 곤충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이 다,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그 부처의 마음은 모두 갖춰 가지고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찰나찰나 나투면서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청수에다가 비유를 하고 또 바다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이란 그저 내 자식, 내 재산, 내 것만 아는 개별적인 그릇으로서만의 얘기고,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다 내가 될 수가 있고, 나로서 행할 수가 있고, 나로 나투면서 이끌어 주시는, 즉 말하자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뭐, 갖은 이름의 일체 보살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체 각계각층 중생들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서 그런 거니까, 그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라는 점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 행으로, 또는 돈을 잘 주거나 옷을 잘 입히거나 잘 먹이거나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정신력을 길러 주는 것이고, 그 보배를 찾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전 우주를 맡겨 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대로 부드럽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다가 다 맡기면, 서로 남편이다 부인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모든 나쁜 습성을 고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또 자식도 몸을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잘해 줘서 되는 것도 아니다. 단하나, 그 모든 업식을 녹여 주면 스스로 밝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당신 주인공에 둘 아니게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만이 부드럽게 행하게 하고, 아주 정말 보배스러운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게끔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모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고, 자비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싱싱하게 키워 주고 보배를 찾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건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연방 해 보세요.

나가서 뭐 어떻게 하고 다니더라도 절대로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속에 들어 있는 업보가 그러는 거니까, 바로 의식들이 그러는 거니까 '주인공! 그 뿌리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공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뿌리만이 싹을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 그렇게 해 주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진짜 진실로써 그렇게 해 주고 한다면 정말 이 고(苦)의 테두리에서 몰락 벗어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착한 자식이 되고 화목을 가져오고,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주 앙숙이었답니다. 그래서 서로 보려고 하질 않았답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리에서 '어휴, 아버지도 내 마음과 둘이 아닌데, 내 뿌리하고 아버지 뿌리하고 둘이 아닌데 그저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고 항상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아버지가요, 딱 껴안고는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살자."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망해 가지고 아주 그냥 들어앉은 사람인데, "이제는 너도 살아야지!" 하고 반을 뚝 떼어서 주더랍니다.

어때요? 모두 자비를 베풀게끔 스스로 이렇게 돼야지 스스로 부처를 만드는 거고, 스스로 보배를 만드는 거고, 자유인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그냥 입으로만 말을 하고…, 이것 보세요. 막 그냥 말을 악착같이 하면요, '어휴! 나는 저 사람만 만나면 아주 지겨워.' 하고 달아나가요. 달아나가게 돼 있다구요. 그러니까 좋다 좋다 해야 그저 따뜻한 데로 고이죠. 추울 때는 따뜻한 데로 고이고 더울 때는 시원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이나 부모지간이나 그 모든 걸 거기다가 '둘 아닌데' 하고 맡겨 놓을 수 있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신다면 바로 이심전심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사세요.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담마를 시스템화 하라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세상은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중
변화하는 시스템은 살아남는 묘책
불교서 시스템 전환 사례가 '법문'

시대, 문화 맞춰 전달된 불교 사상
시스템 통해 신자 믿음 연결 작용

이젠 가정과 사회서 法을 접하도록
법문의 틀을 점검하고 시스템화해야
가정, 사회 맞는 '법 바코드' 붙이자

세상은 시스템 전쟁 중이다. 지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와의 시스템 유지를 위해 쟁탈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맞춰 약 처방과 새로운 행동지침이라는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위한 시스템은 시대, 장소, 대상과 내용에 맞게 변화한다. 변화하는 시스템은 살아남기 위한 묘책이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을 전환한 예로 법문이 있다.

법문은 붓다의 방편적 가르침이다. 방편이란 가장 합법적이고 이치와 방법에 맞는 것이다. 이곳과 저곳, 자신과 타인, 가정과 사회에 모두 유익하고 이익 되는 길은 방편을 통해 열린다.(빠알리 〈율장(Vin)〉 I , 101쪽)

붓다의 법은 이미 널리 오픈돼 있다. 다만 이 내용을 가정과 사회에 맞게 선택해 법 전달 능력을 키워 쉽게와 닿고 이해하기가 쉽고 실천하여 행복을 얻도록 하는 것은 법문하는 자의 몫이다.

미얀마를 예를 들면, 태어나면 요일별로 첫 자음과 동물이름을 갖는다. 일요일은 가루다, 월요일은 호랑이, 화요일은 사자, 수요일은 코끼리, 목요일은 쥐, 금요일은 두더지, 토요일은 용이다. 다만, 수요일은 오후 6시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오후 6시 이전 수요일은 상아있는 코끼리고, 이후는 상아없는 코끼리로, 여덟 방위에 동물을 배대한다. 그래서 절에 불상과 함께 8방위에 상징동물을 배치해 두는데 절을 방문하면 반드시 자신의 탄생 요일과 여덟 방위에 맞춰 꽃공양이나 여타 공양을 올리게 된다.

이것은 신자를 체계적으로 믿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또한 일본에서 태어나면 속명을, 살아가면서 법명을, 마지막 임종 후에 장례식에서는 불명 즉, 극락에서 불려줄 이름을 얻게 된다. 일본불교는 이처럼 생애 전체를 세 개의 이름을 갖게 하는 신자와 불교의 연결고리를 찾는 시스템 전통을 갖고 있다.

이 시대에는 각 단체마다 수많은 최적의 매뉴얼을 지니고 있다. 국가, 사회, 기업이나 종교단체, 심지어 병원, 군대나 맥도널드 등에서 매뉴얼을 엿볼 수 있다. 이 시대에 맞는 법의 방편을 시스템화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를 위한 법문의 틀을 재점검하고 매뉴얼을 최적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시간과 장소, 대상과 내용과 방법에 최적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신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위해 요청한 법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과 사회에서 삼보를 알고 삼보에 대해 배울 기회를 우리 세대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가르침을 주는 것은 법을 주는 것이며 바른 법은 나쁜 신체적, 언어적 행위와 마음을 좋은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와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문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법문과 설법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는 아마존이나 쿠팡의 배달시스템의 장점을 배워야 한다. 바코드를 통해 배분하듯이 불교에서도 법을 잘 배분하여 가정과 사회에 맞는 법 바코드를 붙여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배달할 것인지 명확히 하듯 가르침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전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책이 분류돼 꽂혀 있는 도서관 시스템처럼 가정과 사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개인과 단체가 바르고 좋고 법다운 마음을 기르고 사용하고 키울 수 있도록 담마(법)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법문도 법문의 주제 배우기, 법문 내용구성하기, 법문의 도표화, 그림화, 법문의 반복적 활용하기로 연결된다. 붓다의 제자로서 법사가 되는 일은 하나의 수행길이다. 수행자로서 법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함께 붓다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진행해야 할 역동적인 불자활동이다.

社 說

한일불교 황금유대, 세계평화 초석

'한일 양국의 불교 친선교류는 양국의 불교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양국의 우호, 나아가서는 아시아 및 세계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확신에 의거하여 더 한 층의 우의를 증진시킨다.'

1977년 10월 15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가 서울에서 만나 양국 불교문화교류의 공식적인 첫 걸음을 떼며 발표한 공동선언문 일부다. 46년의 세월에서 양국 사정에 따른 몇 차례의 대회 연기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불가 상황을 지나 올해로 40번째 교류행사를 마련해 깊은 우호를 확인했다.

두 나라의 불교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꾸준히 나왔다. 2005년엔 일한불교협회가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과거사를 공식적으로 참회했고, 이로부터 3년 뒤엔 일본 우천사에서 양국이 합동으로 '한국 출신 전몰자 유골송환 위령제'를 봉행하며 유골 101위를 국내로 반환했다. 교류 30주년이 되던 2009년엔 명성왕후의 고향 여주시의 신륵사에서 일본 측의 과거사 반성 내용을 새긴 '인류화합공생기원비'도 제막했다. 모두 세계평화라는 가치에 부합한 결실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와 달리 최근 10여 년간은 서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언제부턴가 대회 개최마저 부담을 느끼는 일본불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탈종교화 시대, 코로나19 이후 삶의 양식이 변화하며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본이다. 이럴 때일수록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꾸준한 만남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양국이 합의한 청소년 교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양국 불교의 황금유대가 세계평화의 초석이라던 첫 만남의 정신을 기억하자.

새만금 잼버리서 한국불교 알리자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을 찾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가 1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8월 1일부터 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참여자 수도, 야영장 크기도 역대 최대 최고 규모다. 152개국에서 4만 50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이르는 8.84㎢(약 270만 평) 야영장에 모여 지구촌 청소년 축제의 장을 연출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도 참가, 한국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불교연맹은 새만금 잼버리에서 법당과 서브 캠프, 푸드하우스 등을 운영한다.

대회장 내 설치될 잼버리 법당은 참가자들이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단주나 연꽃등 만들기서부터 108배 챌린지 등 체험 활동을 통해 불교전통과 문화를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린다면 이보다 더 큰 포교 효과는 없을 것이다.

푸드하우스도 마찬가지다. 생명존중과 자연친화 정신을 담은 사찰음식 사상을 한국음식 문화와 접목시킨다면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잼버리에서 지향하는 스카우트 정신을 담고 불교연맹의 정체성을 고려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종과 문화를 아우른다면 시대적 흐름도 따르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K-컬처 중심에 있는 우수한 한국불교를 자라나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길 기대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는가

⑮ 디스토피아 세계의 '택배기사'

모든 디스토피아 서사는 계급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흔히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조지 오웰의 〈1984〉,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자먀찐의 〈우리들〉을 꼽는다.

이 작품들은 모든 것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사회의 폐해를 꼬집고 있다. 〈우리들〉의 주인공은 단일제국에 복무하는 수많은 번호 중의 하나인 'D-503'이다. 단일제국에서는 내밀한 사랑조차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1984〉의 배경이 되는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도 국민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기사'도 계급적인 문제점을 꼬집는 디스토피아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인물들이 숫자로 불리듯이 드라마 속 택배기사들도 숫자로 불리고 있다. 드라마 속 사회는 전체주의를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점에서는 〈1984〉의 오세아니아를 닮았다.

드라마의 배경은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2071년. 난민, 일반, 특별, 코어구역 등 4개의 계급 사회를 만든 것도, 운영하는 것도 천명그룹이다.

코어구역은 고위급 관리, 재벌 등 최상류층이 머무는 구역으로 에어로드라는 초거대 산소공급 장치를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특별구역은 지하 5km에 소재한 여러 군 시설이 있는 안전한 지역이다. 일반구역에 배달되는 건조식품이 아닌 일반적인 음식이 제공되지만, 건물 밖에서는 산소마스크를 써야한다.

일반구역은 서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택배기사가 산소공급과 식량배달을 책임진다. 주택에는 보안시스템, 수도, 공기생성, 냉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구역 거주자들은 손등에 QR코드가 있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난민구역은 극빈층의 지역으로 사람들은 노숙 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난민구역 사람들의 유일한 꿈은 택배기사가 되어서 일반, 특별구역까지 출입하는 것이다. 난민의 드림을 실현한 인물이 드라마 주인공인 5-8(김우빈)과 사월(강유석)이다. 드라마 속에서 5-8이 이끄는 블랙 나이트는 계급사회를 전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레지스탕스 조직이다.

난민 출신 택배기사로 구성된 이 조직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난민들을 돕는다. 드라마 말미에 블랙나이트의 혁명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 어찌 보면 '택배기사'는 먼 훗날 벌어질지도 모르는 가상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공간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사막화된 드라마 속의 자연환경은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구의 모습으로 비쳐진다. 산소와 식량을 독점하는 천명그룹의 행태에서 영토의 경계 없이 확장하는 신자유주의를 읽을 수 있다.

닐 포스트먼에 따르면, "조지 오웰이 묘사한 세계는 공포와 기만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올더스 헉슬리가 묘사한 세계는 욕망과 말초적인 자극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조지 오웰이 무엇을 금지하는 사회를 두려워했다면, 올더스 헉슬리는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은 사회를 두려워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무엇으로 지배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숙고해볼 일이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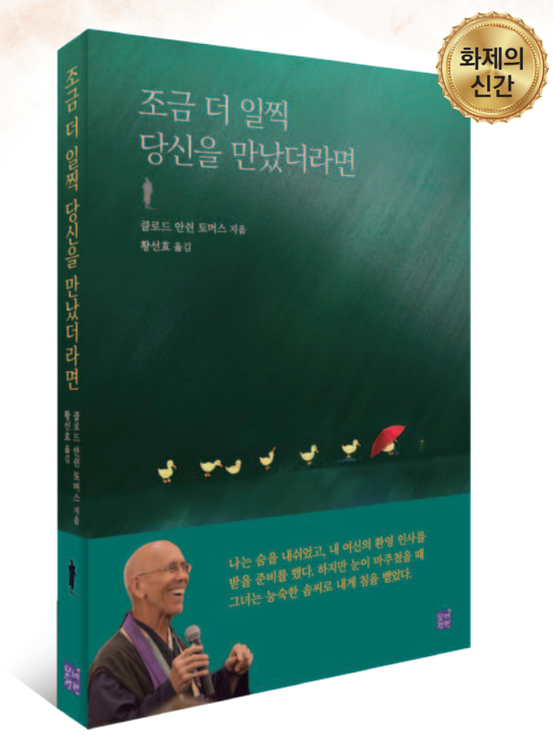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